정답과 해설

본책 02
시험 대비 문제집 30

정답과 해설 본책

1 문학과 매체로 여는 소통의 창

깊이 감상하고 넓게 표현하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1) ○ (2) ○ (3) × (4) × 02 (1) 은유 (2) 직유 (3) 의인
03 ①

01 (3)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4) 상징은 표현하려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02 (1)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표현한 은유이다.
(2)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처럼'으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한 직유이다.
(3)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미소 짓는다고 표현한 의인이다.

03 상징은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징을 활용하면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재 ❶ 봄날 아침

학습콕 009쪽

봄날 아침, 문장 구조, 활유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09쪽

01 ⑤ 02 쫑쫑, 톡톡, 팔짝팔짝, 풀풀

01 이 시의 3연에서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하며,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유의 종류 중 활유이다. 의인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02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은 의성어, 모습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말은 의태어이다. 이 시에 의성어와 의태어는 '쫑쫑', '톡톡', '팔짝팔짝', '풀풀'이 사용되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09쪽

(1) 간밤 (2) 곱다 (3) 쫑쫑

활동 010~012쪽

010쪽 리듬감
011쪽 빗방울, 나뭇가지
012쪽 책상, 떡

학습콕 010~012쪽

010쪽 반복, 분위기
012쪽 보조 관념, 직접, 의인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10~012쪽

010쪽 01 ① 02 ⑤ 03 ⑤
011쪽 04 ④ 05 ④ 06 ④
012쪽 07 ④ 08 ③

01 이 시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말하는 이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③ 2연을 통해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빗방울을 쪼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④ 이 시는 비가 그친 후 싱그러운 아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⑤ 2연을 통해 나뭇가지에 맺힌 빗방울이 튕겨 나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02 이 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단어나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 즉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는 운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3 제시된 설명은 단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 의성어 ·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 형성되는 운율의 효과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표현은 의태어 '풀풀'이 사용된 ⑤이다.

04 이 시에서는 '참새들이 빗방울을 쪼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는데, 두 모습의 공통점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양'이다.

05 (나)에서는 살아 있지 않은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하며, 대상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유의 종류 중 활유이다.

06 '즐거운 노래'는 참새들이 나뭇가지를 쪼았을 때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은유가 쓰였다.

07 비유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시에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생생하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시의 분위기를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08 '흐린 어둠 속 빛나는 별'은 대상을 무언가에 빗대어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비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내 마음'(원관념)을 '호수'(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직접 연결하는 말이 없으므로 은유가 사용되었다.
② '달'(원관념)을 '쟁반'(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이를 '같이'로 직접 연결하였으므로 직유가 사용되었다.
④ '발걸음'(원관념)을 '깃털'(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이를 '처럼'으로 직접 연결하였으므로 직유가 사용되었다.
⑤ 사람이 아닌 대상인 '나무'가 사람것처럼 손을 흔든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이 사용되었다.

제재 ❷ 새로운 길

학습콕

013쪽

반복, 길, 내, 숲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13쪽

01 ⑤ **02** ④

01 이 시의 5연에서는 1연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길을 걸어가는 말하는 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의지와 희망을 엿볼 수 있으며, 막막한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말하는 이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13쪽

(1) 일어 (2) 내

활동

014~016쪽

014쪽 고개, 마을, 인생, 희망
015쪽 추상적
016쪽 상징, 운율

학습콕

015쪽

구체적, 원관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14~016쪽

014쪽 **01** ③ **02** ① **03** ㉠ 구체적, ㉡ 길
015쪽 **04** ④ **05** ③ **06** ③
016쪽 **07** ③ **08** ⑤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숲과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길 위에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과 같은 다양한 존재를 만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하는 이는 숲과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닌, 숲과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② 말하는 이가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으면서 주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말하는 이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말하는 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이라는 구절을 통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3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에서는 '인생, 삶'이라는 개념을 '길'이라는 사물로 대신 표현하여,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냈다.

04 내와 고개는 물이 흐르고 비탈져서 지나가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내와 고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의미한다. 반면 숲과 마을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의미한다.

05 이 시의 3연에 나오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말하는 이가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존재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을 상징한다. '마을'은 말하는 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상징한다.

06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상징을 사용하면 시어의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07 제시된 시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빨래'와 '색종이' 등에 비유하여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정서를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므로, 시를 점검할 때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바탕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활동 마무리

017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②
정리 확인 문제 **02** ③

01 '팔짝팔짝'은 '갑자기 가볍고 힘 있게 자꾸 날아오르거나 뛰어오르는 모양'으로 발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갔다는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02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인 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 즉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압축 파일

018쪽

❶ 의태어 ❷ 문장 구조 ❸ 직유 ❹ 은유 ❺ 활유
❻ 상징적 ❼ 3 ❽ 삶 ❾ 시련

발전 활동

021쪽

021쪽 할머니, 집

학습콕

020쪽

파랑새, 행복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19~021쪽

019쪽 **01** ③ **02** ④
020쪽 **03** ⑤ **04** ②
021쪽 **05** ② **06** 행복 **07** ④

01 틸틸과 미틸은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 긴 여행과 특별한 모험을 하였다.

오답 풀이 ① 틸틸과 미틸은 꿈속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지 않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났다.
②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했을 뿐 엄마에게 파랑새를 사 달라고 조른 것은 아니다.
④ 틸틸과 미틸은 오랫동안 여행을 한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하룻밤 꿈을 꾼 것이고 어젯밤에 엄마와 인사를 했었다.
⑤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꼭 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 때문이었다.

02 할머니는 틸틸에게 받은 파랑새를 아픈 손녀에게 가져다준다.

03 틸틸과 미틸이 이웃집 할머니를 보자마자 파랑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엄마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꿈에 나왔기 때문에 그 꿈을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04 틸틸과 미틸은 꿈에서 찾아 헤매던 '파랑새'를 집에서 발견하며,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05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지만, 틸틸은 울상을 짓는 소녀를 달래면서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한다.

06 이 글에서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인 '파랑새'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07 이 글에서 '파랑새'가 상징하는 행복은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닌 가까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날에만 받는 선물은 '파랑새'의 의미와 다르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19쪽

(1) ○ (2) ○ (3)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22~023쪽

01 ④ **02** ⑤ **03** ② **04** 원관념은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이고, 보조 관념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다. **05** ⑤
06 ② **07** ⓐ 숲, ⓑ 마을 **08** ⑤ **09** ⑤ **10** ④

01 이 시는 봄날 아침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말하는 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기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와 같은 감탄사에도 이러한 정서가 나타난다.

02 이 시는 동일한 단어, 문장 구조의 반복과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운율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3 3연에서는 살아 있지 않은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하며, 대상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활유로 비유의 한 종류이다. 비유를 사용하면 더 참신하고 생생하게 대상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

04 서술형 ㉠에서는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대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다.

05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 오늘도…… 내일도……'라는 표현에서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여기서 '길'은 말하는 이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을 의미한다.

06 이 시에서 '길'은 말하는 이가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삶을 의미한다. 말하는 이는 시련과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07 서술형 '내'와 '고개'는 극복해야 하는 시련을 상징하는 반면, '숲'과 '마을'은 말하는 이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상징한다.

08 이 시에 나타난 표현 방법은 상징으로,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연관성이 적다는 특성이 있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9 틸틸과 미틸은 집에서 파랑새를 발견한 뒤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고, 파랑새가 날아가도 실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아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이다.

오답 풀이 ① 아이들이 파랑새를 찾는 동화적인 이야기 안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③ 틸틸이 행복은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독자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④ 이 글의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고, 이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0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는 틸틸의 마지막 말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가 드러난다.

12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하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24쪽

01 (1) ○ (2) ○ (3) × **02** 소통 맥락 **03** ⑤

01 (3) 상호 작용적 매체에 작성된 하나의 게시물은 여러 가지의 소통 목적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하여 소통할 때는 소통 목적(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등)과 소통 공간의 특성(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등), 즉 소통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03 사적인 내용은 가급적 온라인 대화방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것이 좋다.

활동

025~033쪽

026쪽 제약, 한
027쪽 격식
028쪽 특성
029쪽 경험, 높임 표현
031쪽 댓글, 대화방, 실시간
032쪽 동영상, 제품, 개인 정보
033쪽 온라인 대화방

학습콕

025~033쪽

026쪽 양방향, 불특정
031쪽 목적, 공간
033쪽 소통 방식, 맞춤법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25~033쪽

025쪽 01 ④ 02 ⑤
026쪽 03 ④ 04 ①
027쪽 05 ⑤ 06 ⑤ 07 ④
028쪽 08 ⑤ 09 ④
029쪽 10 ③ 11 ④
030쪽 12 공적, 사회 관계망 서비스 13 ⑤ 14 ②
031쪽 15 ① 16 ③
032쪽 17 ①, ③ 18 ② 19 ⑤
033쪽 20 ⑤ 21 ③

01 텔레비전의 기자는 고궁 야간 개장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가족들이 텔레비전에서 전달한 정보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따로 찾아보아야 한다.

02 (가)는 텔레비전이고, (나)는 방송국 누리집이다. (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려운 반면,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양방향 소통 여부가 다르다.

03 상호 작용적 매체는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답 풀이 ① 상호 작용적 매체로 제공되는 정보는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②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 않아도 된다.

04 상호 작용적 매체란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신문은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생산자와 수용자, 또는 수용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로 보기 어렵다.

05 '준후'는 [A]를 쓰기 전에 "학교 누리집에 공지를 올려서 홍보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고, [A]에서 행사의 내용을 알리며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06 [A]에 쓰담 달리기가 일반 달리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다는 사실은 나타나지만, 달리기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07 [A]에서는 쓰레기를 담을 비닐 봉투, 목장갑, 집게는 당일에 나누어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가져온 윤미는 [A]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맞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08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주로 공유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개성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언어 표현보다는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09 학교 누리집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므로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신비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쓰담 달리기'에 참여한 소감과 함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조어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 형식과 격식을 지켜 표현하고 있다.

11 '우주'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은 쓰담 달리기에 참여하며 강아지를 만난 자신의 경험과 이에 대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12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의 소통은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자신의 생각, 의견, 관점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한다.

13 블로그는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 공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글을 쓸 수도 있으나 공적인 정보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는 매체가 아니며,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다.

14 (나)의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민하가 이사를 간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사를 가도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사를 가지 못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글과 사진, 동영상, 이모티콘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16 블로그와 온라인 대화방은 이웃이나 친구를 맺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

17 평가를 받고자 게시한 동영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18 (나)는 제품 누리집 고객 게시판으로,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 (나)에서 밑줄 친 답변은 공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간에서 독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20 제시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 따라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③ 제시된 상황은 사적인 경험을 기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적인 정보 공유나 실시간 정서 표현은 활용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적절한 매체이다.
④ 제시된 상황은 영상이 아닌 사진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영상 공유는 활용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21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 시각 자료나 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 맥락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25~033쪽

025쪽 (1) ○ (2) ○ (3) ×
028쪽 (1) 특정 (2) 개정 (3) 초점
031쪽 (1) 비롯하다 (2) 관점

활동 마무리

034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② 정리 확인 문제 02 ④

01 '게시'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또는 그런 물건.'이라는 뜻이다. ②의 문장에서는 '전람회, 전시회, 품평회 따위에 작품이나 물품을 내어놓음.'이라는 의미의 '출품'이 더 적절하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는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통 맥락은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압축 파일

035쪽

❶ 공적 ❷ 격식 ❸ 블로그 ❹ 이웃 ❺ 온라인 대화방
❻ 댓글 ❼ 방식 ❽ 파급력

발전 활동

036~037쪽

036쪽 불특정 다수
037쪽 사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36~037쪽

036쪽 01 ⑤
037쪽 02 ⑤ 03 개인적 04 ④

01 모둠별 온라인 전시회의 주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좋다. 학기별 수행 평가 일정은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이므로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은 올리지 않아야 한다.

04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고 서로 낙서를 하듯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공간이다. 따라서 길고 자세한 글을 통해 깊이 있는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36쪽

(1) 개최 (2) 유의 (3) 존경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38~041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① **10** ④ **11** ②
12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13** ⑤ **14** ⑤

01 〈보기〉에서는 고궁 야간 개장에 대한 뉴스를 본 수용자들이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책은 정보가 한 방향으로 전달되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누리집, 온라인 대화방, 블로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모두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03 제시된 학교 누리집에는 쓰담 달리기 행사에 대한 공지 내용이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높임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댓글이다.

05 (가)는 신비가 쓰담 달리기를 마친 후의 소감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우주가 쓰담 달리기를 하면서 강아지를 만났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쓰담 달리기에 대한 소감을 남기고 있다.

06 (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도 강아지가 귀여웠다는 것과 쓰담 달리기에 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가)는 전체 공개, (나)는 친구 공개로 글의 공개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불특정 다수를,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친구를 독자로 하고 있다.
③ (가)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설득이, (나)는 강아지가 귀여웠다는 정서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가)는 맞춤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07 〈보기〉는 신비와 우주의 게시 글을 읽은 수용자들이 게시 글에 댓글을 닮으로써 정보를 생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08 (가)는 블로그로서 특정한 주제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은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기에 편리하고,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서 같은 대화방에 모인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기에 편리하다.

09 (가)의 블로그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을 기록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 활용한다고 볼 수 없다.

10 온라인 대화방은 대화방에 소속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둠 구성원끼리 모여 논의하기에 적절하다.

11 〈보기〉에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일상을 공유하고 이를 본 수용자가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댓글의 반응에 따라 동영상을 수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서술형 누리집 고객 게시판은 제품과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의 답변은 질문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3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독자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여러 사람이 함께 게시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댓글로 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로 이웃을 맺으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은 블로그이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42~045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나뭇가지, 빗방울
06 ③ **07** ⑤ **08** ⑤ **09** ③ **10** ① **11** ①
12 ③ **13** ② **14** ③ **15** ② **16** ⑤ **17** ⑤

01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봄날 아침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3연의 감탄사 '아-'를 통해 이러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02 이 시에서는 동일한 시어와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같은 행의 글자 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03 '피아노 치듯'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인 운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아노 치듯 쫑쫑 눌러 봅니다'는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비유한 것으로, 비유 중 직유가 사용된 시행이다.

04 이 시의 3연은 살아 있지 않은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한 활유가 사용되었다. 〈보기〉는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줄어들고 있다.

05 서술형 이 시의 '즐거운 노래'는 참새들이 나뭇가지를 피아노 치듯 쪼아대자 튕겨 나온 빗방울을 의미한다.

06 이 시는 '길'을 소재로 하여 말하는 이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상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4연에서 말줄임표로 여운을 주고 있다.
②, ④ 말하는 이는 어제도, 오늘도 길을 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끝없이 이어진 길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⑤ 말하는 이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독자가 이에 감명 받아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07 말하는 이는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는 시련과 역경을 지나 희망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며, '나'가 숲과 마을에서 만나고자 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길 위에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을 만난다.
② '나'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고 있다.
③ '나'는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
④ '나'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08 이 시는 1연을 5연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또 운율을 형성하여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작품 속 상황을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9 이 시에 사용된 '내'와 '고개'는 살면서 만나는 시련과 역경을 상징한다. 말하는 이는 시련과 역경을 지나 희망과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길'은 말하는 이의 인생, 삶을 상징한다.
② '어제', '오늘'은 끊임없이 걸어가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낸다.
④ '숲', '마을'은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상징한다.
⑤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존재를 상징한다.

10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단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보다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고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11 (가)는 쓰담 달리기 행사와 관련된 정보 전달이, (나)는 쓰담 달리기 행사를 마친 후의 정서 표현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설득이 나타나고 있다. (다)는 이사 가는 친구를 향한 정서 표현과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다)에 건의의 목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일상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고 해당 소통 공간에 함께 소속된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다)의 온라인 대화방이다.

13 (가)는 학교 누리집으로 쓰담 달리기 행사와 관련된 공지를 전달하고 있고,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쓰담 달리기 행사에 참여한 후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때 (가)와 (나)는 모두 글을 읽는 독자를 고려해서 알맞은 내용을 적절한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학교 누리집은 쓰담 달리기의 내용과 의의, 일시, 출발 장소, 준비물 등을 알리고 있다.
③, ④ (나)는 쓰담 달리기에 참여한 소감과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다. 반면 (가)에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⑤ (가)는 쓰담 달리기 행사의 공지 내용이고, (나)는 쓰담 달리기 행사에 참여한 후기이다.

14 상호 작용적 매체에 댓글을 달거나 응답을 할 때는 소통 맥락을 고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③은 글의 내용에 공감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15 (가)는 발표회를 위한 춤 연습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발표회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 (나)에서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질문자는 상대방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17 (가)의 게시물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의 댓글은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에 줄임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ㄴ. ㉠에 상대를 설득하려는 목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지혜

글 속에 숨은 생각 찾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48쪽

01 (1) ○ (2) × (3) ○ 02 추론 03 ④

01 (2) 추론하며 읽는 방법에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글의 제목, 소제목을 활용하는 것은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02 글쓴이는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일부러 밝히지 않기도 하므로 독자는 이를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03 추론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여 꼼꼼하게 읽게 되어 글을 잘 기억할 수 있다. 또 글을 폭넓게 이해하여 숨은 주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글을 잘 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콕

049~053쪽

050쪽 방, 거실, 개인적, 공유, 소통

053쪽 길, 골목길, 인위적, 옛날 골목길, 소통, 삶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49~053쪽

049쪽 01 ⑤ 02 정리

050쪽 03 ② 04 ④

051쪽 05 ④ 06 ⑤ 07 ⑤

052쪽 08 ⑤ 09 ⑤

053쪽 10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지금보다 한 뼘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1 ④

01 수필은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 따라서 수필이 객관적 사실만을 다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글쓴이는 방을 정리하지 않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학생 1'의 사례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알찬 하루를 보낸 '학생 2'의 사례를 비교하여 방을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독자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있다.

03 대청마루(㉠)는 지나가던 이웃, 친구, 가족 등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인 반면, 오늘날의 거실(㉡)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 전화를 하는 등 소통이 단절된 공간이다. 따라서 적막감이 흐르는 공간은 ㉠이 아닌 ㉡이다.

04 대청마루는 옛날의 소통 공간이며, 책, 식물은 소통의 공간으로 바뀐 거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제시된 대상은 모두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중립적'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냉소적'은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부정적'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비판적'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05 예로부터 길이 지형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오래된 길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06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도로', '마치 서로 일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 등에서 '도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④는 '길'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생각에 해당한다.

07 ㉢은 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삶에서 길이 지닌 의미에 대해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있다.

08 글쓴이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지금의 골목길'을 '옛날 골목길'처럼 사람들이 서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09 '옛날 골목길'과 같은 삶의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교류하는 과정에서 삶의 여유, 이웃을 대하는 배려,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0 이 글은 우리가 가꾼 공간이 삶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차)에서 찾으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적절하다.

11 글쓴이가 개인적 공간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49~053쪽

049쪽 (1) 여정 (2) 수북이

050쪽 (1) ○ (2) × (3) ×

052쪽 (1) 확장 (2) 온기 (2) 왕래

활동

054~056쪽

055쪽 공간, 부정적, 공동체

056쪽 행복, 이해, 주제

정답과 해설 본책

학습콕

056쪽

배경지식, 글쓴이, 기억, 의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4~056쪽

054쪽 01 ② 02 ③
055쪽 03 ④ 04 ② 05 공동체
056쪽 06 ⑤ 07 ②

01 제시된 글은 독자가 읽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떠올리며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을 추론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소통의 공간이자 삶의 공간으로서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을 뿐, 취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소제목을 활용하여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한 것이다.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을 추론한 것이다.
④ 중요한 어구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한 것이다.
⑤ 글에 나타난 표현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한 것이다.

03 이 글은 집과 길의 공간별로 소제목을 나누고 각 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간에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04 글쓴이는 집에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개인적인 공간인 방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유하는 공간인 거실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였다.
③ 옛날의 대청마루와 오늘날의 거실을 비교하면서 소통이 줄어든 현실을 말하기는 하였지만, 거실을 대청마루로 꾸미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④, ⑤ 길, 골목길과 관련된 내용은 집을 가꾸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05 글쓴이는 소통의 공간으로 바뀐 거실과 서로 관계를 맺는 골목길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소통하며 사는 삶을 바라고 있다.

06 글쓴이는 현대의 사람들이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옛날 골목길'과 같은 소통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07 추론하며 읽으면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추론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추가 자료가 필요한 일이다.

활동 마무리

057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⑤ 정리 확인 문제 02 ④

01 '인위적'은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므로, 문맥상 바위가 자연의 힘으로 무리를 이루어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는 ⑤의 내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02 글에 나타난 정보 중 소제목 또한 추론하며 읽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압축 파일

058쪽

❶ 개인적 ❷ 공유 ❸ 직선 ❹ 골목길 ❺ 길 ❻ 도로 ❼ 공간 ❽ 배경지식 ❾ 정보

발전 활동

059~062쪽

061쪽 안전 불감증
062쪽 안전 교육

학습콕

060쪽

사실감, 신뢰성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9~062쪽

059쪽 01 ② 02 ② 03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060쪽 04 ⑤ 05 안전 불감증 06 ④
061쪽 07 ⑤ 08 ③
062쪽 09 ② 10 ④

01 (나)에서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위법 사항을 적발한 건수가 7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주 연령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은 (나)에, ③, ④, ⑤는 (가)에 나타나 있다.

02 (가)와 (나)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함을 문제 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위험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 ㄱ, ㄷ을 들 수 있다. ㄴ, ㄹ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킨 사례에 해당한다.

03 글쓴이는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자들이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린다고 하였다.

04 ㉣은 응급 처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이므로 글쓴이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철, 에스컬레이터, 도로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05 (가)~(라)에서는 전철과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06 이 글은 전철과 도로에서의 안전 불감증 사례를 통해 일상에 퍼진 안전 의식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07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에 뛰면 안 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 수칙을 지키게 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④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08 배경지식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말한다. 기사를 추론하며 읽을 때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배경지식을 쌓기는 어렵다.

09 안전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는 글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10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과 안전 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담은 이 글을 읽은 독자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릴 수 있다. 자전거를 탄 후 보기 좋게 똑바로 주차하는 것은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천 방안과 거리가 멀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63~065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07** ③ **08** ④ **09** ⑤

01 글을 읽고 메모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며 읽는 활동이 아닌, 글을 다 읽은 후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다.

02 '학생 1'은 방을 정리하지 않은 사례, '학생 2'는 방을 잘 정리한 사례이다. 글쓴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하루를 비교함으로써 방을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03 글쓴이는 '방'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도로, '거실'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로 글을 쓰고 있다. 따라서 두 공간의 차이점보다는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공간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04 글쓴이는 (나)에서 도로를 보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도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로 건설 후 만족해하는 주민들의 인터뷰는 글쓴이의 관점에 맞지 않다.

05 글쓴이는 도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도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뒤에 도로를 길로 되돌리자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6 서술형 글쓴이는 사람들이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에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누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07 이 글은 일상에 퍼진 안전 불감증의 문제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 가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다)에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불감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② (마)에서 보건 교육 포럼 △△△ 이사장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가)에서 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출퇴근 시 무리하게 열차에 타고 내리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나)의 경찰청 통계 자료, (다)의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 (라)의 서울시 설문 조사 자료, (마)의 국가데이터처 조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08 이 글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철, 도로에서의 안전 불감증 사례를 떠올리며 읽을 수 있다. ④는 글을 읽은 후 알게 된 내용이므로 추론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배경지식으로 보기 어렵다.

09 글쓴이는 일상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12 실마리를 따라가며 듣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66쪽

01 (1) ○ (2) ○ (3) × **02** ④ **03** ④

01 (3) 추론하며 들을 때는 화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화자의 목소리 크기, 속도, 표정, 몸동작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02 같은 말이라도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담화의 상황 맥락이나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해서 추론하며 듣는 것이 좋다.

03 담화의 의미를 추론할 때는 상황 맥락과 화자가 강조하는 내용, 목소리 크기, 표정, 몸동작 등과 같은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신체적 장점은 이와 관련이 없다.

활동

067~074쪽

067쪽 손님, 병원
068쪽 의미
069쪽 관계, 성격, 시선
073쪽 배경지식, 관심, 관점
074쪽 설득, 반복

학습콕

067~074쪽

068쪽 상황, 관계, 시간, 목적
070쪽 주제, 집중, 방과 후
071쪽 관찰력, 정보 전달, 먹, 농도, 덧칠
072쪽 재미, 관찰
074쪽 상황 맥락, 시간, 의도, 반복, 표정, 몸동작, 이해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67~074쪽

067쪽 01 ② 02 ③ 03 ③
068쪽 04 ④ 05 담화의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069쪽 06 ③ 07 ② 08 ④
070쪽 09 ② 10 ⓐ 희망 중학교 학생들, ⓑ 강당 11 ④
071쪽 12 ⑤ 13 ⑤ 14 ⑤
072쪽 15 ⑤ 16 ④
073쪽 17 ⑤ 18 ③
074쪽 19 ③ 20 ②

01 담화의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맥락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담화의 의도나 목적 등을 포함한다.

02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이 달라지면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의 의미가 달라진다.

03 의사는 환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아픈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병원에 온 이유를 밝히는 대답이 적절하다.

04 동호회 모임에서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라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식사 준비를 하거나 식사를 하러 이동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5 (가)는 가뭄이 심하던 시기에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나)는 소풍날 비가 올 것을 걱정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처럼 같은 발화라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6 소풍 가는 버스에서 승우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승우의 밝은 표정과 영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승우의 발화 의도가 "여기에 앉아."라는 뜻임을 추론할 수 있다.

07 제시된 담화에서 미주는 과자를 쳐다보며 말을 하고 있다. 이에 영재는 미주의 시선을 근거로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 미주의 마음을 추론한 것이다.

08 상대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화를 빠르게 끝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9 추론하며 들을 때는 담화의 상황 맥락, 또는 화자의 목소리 크기나 몸동작, 표정 등의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화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등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10 화자가 "희망 중학교 학생 여러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강연의 청자는 희망 중학교 학생들이다. "방과 후에도 제 강연을 듣기 위해 강당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강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강당이다.

11 화자는 청중이 현실의 구체적인 일들을 잊고 강연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2 이 강연의 화자가 말하는 도중에 직접 그림을 그리며 시범을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이 강연을 통해 신사임당이 먹의 농도를 달리하여 가지마다 색깔이 다른 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붓을 활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신사임당은 가지마다 먹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색을 다르게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포도」 그림은 먹색 하나로만 그린 작품이라고 하였다.
③ (바)에서 한 번 붓이 지나간 곳에는 덧칠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④ (바)에서 곧게 내리그은 가지와 용수철 모양의 덩굴손을 생생하게 그렸다고 하였다.

14 ㉡에서 화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다시 살펴보세요."라는 발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 이 강연에서 화자는 사람들이 옛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옛 그림 감상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추론하며 들으면 강연의 표면적 주제뿐 아니라 이면적 주제,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제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17 화자는 이 강연의 청자가 희망 중학교 학생임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어휘로 「포도」 그림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과, 옛 그림을 감상할 때의 자세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② 이 강연은 「포도」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옛 그림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감상해야 함을 설득하고 있다.
③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강연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포도」 그림을 직접 보여 주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18 이 강연의 화자는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지 청중에게 묻고, 청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19 이 강연은 그림을 잘 살펴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옛 그림을 감상할 때는 세밀하게 관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 화자는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본받아 옛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옛 그림이 지루하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옛 그림은 재미있고 쉽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67~074쪽

073쪽 (1) ○ (2) ○ (3) ×

활동 마무리

075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④ 정리 확인 문제 02 (1) 화자 (2) 반복 (3) 관계

01 '농도'는 '용액 등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를 뜻하므로, 문맥상 ④에 어울리지 않는다. ④에는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의미하는 '부피'를 사용해야 한다.

02 (1) 청자는 담화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의 의도와 관점, 가치관을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2) 화자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한다. 따라서 청자는 이를 고려하여 추론할 수 있다.
(3)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담화의 상황 맥락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발화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압축 파일

076쪽

❶ 화자 ❷ 청자 ❸ 맥락 ❹ 시간 ❺ 공간 ❻ 상황 ❼ 의사소통 ❽ 정보 전달 ❾ 관찰자 ❿ 공감

발전 활동

077쪽

상황 맥락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7쪽

01 ③ 02 ② 03 ③

01 동생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언니가 그 의미를 물어볼 때는 "무슨 뜻이야?"가 적절하다.

02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지금 뭐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단 횡단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다.

03 대화를 추론하며 들을 때는 청자가 아닌 화자의 표정이나 몸동작을 고려해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78~079쪽

01 ⑤ 02 ④ 03 같이 매점에 가자. 04 ④ 05 ② 06 ⑤ 07 ③ 08 ① 09 ③ 10 ④

01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상황 맥락과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난 의미뿐 아니라 숨은 의미나 의도, 목적 등을 추론해야 한다.

02 제시된 그림에서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라는 동일한 발화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손님에게 옷이 불편한지 물어보는 상황과, 환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는 상황으로, 담화의 목적과 의도가 서로 다르다.
③, ⑤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점원과 손님, 의사와 환자이며,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옷 가게와 병원으로 서로 다르다.

03 서술형 영훈의 시선을 고려한다면 "배고프지 않아?"라는 발화는 매점에 함께 가자고 물어보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04 영재는 슬기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몸동작과 창문을 열기 어려운 슬기의 자리 특성을 바탕으로 발화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05 슬기의 몸동작과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근거로 슬기의 발화가 창문을 열어 달라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는 창문을 열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답을 할 수 있다.

06 추론하며 들으면 겉으로 드러난 발화의 의미뿐 아니라 숨은 주제나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화자의 가치관을 청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07 강연자가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는 강연에서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처음 나오는 단어보다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08 (가)에서 강연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림을 감상할 것이라고 하며 강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실의 구체적인 일인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잊으라고 하면서 청중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09 이 강연에서 화자는 「포도」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옛 그림을 감상할 때 자세히 살펴볼 것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0 "어떠세요?"는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상황 등에서 쓰일 수 있다. 처음 온 손님을 응대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80~083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⑤ 10 ③ 11 ④ 12 ②
13 옛 그림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하자. 14 ④

01 오늘날의 거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휴대 전화를 하느라 소통이 부재하여 적막감이 흐르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족들과 대화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없다.

02 글쓴이는 공간을 가꾸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간을 가꾸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⑤가 적절하다.

03 (다)에서 글쓴이는 거실과 관련한 독자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통이 부재한 거실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조상들의 집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04 글쓴이는 방을 정리하지 않은 학생과 방을 깨끗하게 정리한 학생을 대조해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 1'에게 '학생 2'처럼 방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05 이 글을 통해 길과 도로의 특징은 알 수 있으나, 길을 도로로 확장하는 방법은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길의 특징과 인위적으로 확장하여 건설되는 도로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② (가)에 오솔길, 들길, 골목길 등 다양한 길이 제시되어 있다.
③ (나)에 이웃과 정겹게 지내던 옛날 골목길의 풍경이 제시되어 있다.
⑤ (나)와 (다)에 소통하는 공간인 옛날 골목길과 소통이 부재한 공간인 오늘날 골목길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06 예전에 본 방송의 내용을 떠올리며 추론하고 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인 배경지식을 활용한 추론에 해당한다.

07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도로'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글쓴이가 도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도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①~④와 달리 ⑤는 도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8 이 글의 글쓴이는 시민의 인터뷰,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09 글쓴이는 전철,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말하고,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10 추론하며 들을 때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담화의 의도나 목적, 화자의 준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발화의 양의 적절성은 추론하며 들을 때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멀다.

11 〈보기〉의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언니의 발화는 공부를 해야 하므로 소리를 낮춰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생은 "알겠어. 조용히 있을게."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보기〉는 오만 원권 지폐에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실려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사임당을 소개하고 지폐 속 「포도」 그림을 보여 주고 있는 (나)의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서술형 강연자는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중들이 이를 본받아 옛 그림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14 ㉣에서 강연자는 청중이 옛 그림을 지루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3 다채로운 우리말 어휘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86쪽

01 (1) × (2) ○ (3) ○ **02** (1) 논(어근), 밭(어근) (2) 풋–(접사), 사과(어근) (3) 장난(어근), –꾸러기(접사) **03** (1) 네티즌 (2) 둘레길 (3) 배낭족

01 (1) 단어는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따라서 단어는 형태소보다 큰 단위이다.

02 (1) '논밭'에서 '논'과 '밭'은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이다.
(2) '풋사과'에서 '풋–'은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접사이고, '사과'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이다.
(3) '장난꾸러기'에서 '장난'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이고, '–꾸러기'는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접사이다.

03 (1) '네티즌'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한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둘레길'은 '둘레'와 '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에 해당한다.
(3) '배낭족'은 '배낭'과 '–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배낭'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이고, '–족'은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접사이다. 따라서 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에 해당한다.

활동 087~099쪽

089쪽 먹–
090쪽 풋–
091쪽 어근, 오가다
092쪽 헛고생, 헛–
093쪽 바느질, 어근, 접사
094쪽 사회, 파생어
095쪽 숲캉스, 첫
096쪽 합성, 파생
097쪽 뜻, 우리말
098쪽 파생어
099쪽 어근, 접사, 우리말

학습콕 087~099쪽

087쪽 일부분, 각자 내기
089쪽 분리, 뜻, 형태소, 문법
090쪽 의미, 제한, 어근
093쪽 실질, 어근, 접사
096쪽 합성, 파생, 첫, 일부분
099쪽 의미, 우리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87~099쪽

087쪽 01 ① 02 ④ 03 우리말
088쪽 04 ① 05 ③ 06 ④
089쪽 07 ④ 08 ④ 09 ⑤
090쪽 10 ④ 11 ⑤ 12 ③
091쪽 13 ② 14 (1) 구름 (2) 비웃 (3) 짓누르다 15 ③
092쪽 16 ④ 17 ③ 18 ⑤
093쪽 19 (1) 콧등, 나뭇잎 (2) 마소, 아드님 20 ⑤
094쪽 21 ① 22 ④ 23 ③
095쪽 24 ③ 25 레포츠, 웃프다, 호캉스 26 ②
096쪽 27 ④ 28 ①
097쪽 29 ③ 30 ②
098쪽 31 ③ 32 ⑤
099쪽 33 ⑤ 34 ⑤

01 ㉠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김밥'의 앞에 재료인 '참치', '김치', '소고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이 재료들 또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들이다.

02 '라볶이'는 '라면'의 '라'와 '떡볶이'의 '볶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로,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웃기다'의 '웃'과 '슬프다'의 '프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웃프다'이다.

오답 풀이 ① 어근인 '금'과 어근인 '손'이 결합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②, ③ 어근인 '엄지'와 접사인 '-족', 어근인 '질문'과 접사인 '-쟁이'가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⑤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단어이다.

03 '더치페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각자 내기'는 이를 우리말로 다듬은 것이다.

04 문장은 단어로 나눌 수 있고, 단어는 다시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형태소를 더 나누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한다.

05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산, 자다)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가, 에서)을 의미한다. '-던'은 형태소에 해당한다.

06 제시된 문장을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면 '토끼 / 가 / 풀 / 을 / 먹- / -는- / -다'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단어로 나눈 것이다.
② '-는-'은 현재형임을 뜻하는 별개의 형태소이므로, '는다'는 '-는-'과 '-다'로 나뉜다.
③ '먹-'은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므로, '먹는'은 '먹-'과 '-는-'으로 나뉜다.
⑤ '토끼'를 나누면 각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토끼'는 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07 '산딸기가 달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산 / 딸기 / 가 / 달- / -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는 '가', '달-', '-다'이며, 이 셋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는 '달-'이다.

08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이므로, 이 문장에서 '이', '을', '-ㄴ-', '-다'가 해당한다.

오답 풀이 형식 형태소와 반대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봄', '바람', '얼굴', '스치-'이다.

09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이', '에서', '을', '읽-', '-다'로 5개이다.

오답 풀이 ① 단어는 '동생 / 이 / 방 / 에서 / 소설책 / 을 / 읽다'로 7개이다.
②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동생', '방', '소설', '책'으로 4개이다.
③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동생', '방', '소설', '책', '읽-'으로 5개이다.
④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이', '에서', '을', '-다'로 4개이다.

10 '무지개'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무지'와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무지개'가 하나의 형태소이다.

11 '심술꾸러기'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 '심술' 뒤에 '-꾸러기'라는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물통'과 '책가방'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②, ③ '맨발'과 '치뜨다'는 접사가 어근 앞에 결합한 단어이다.

12 '산나물'은 어근 '산'과 어근 '나물'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산'이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라고 설명한 ③은 알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군침'은 접사 '군-'과 어근 '침'이 결합한 단어이다.
② '길이'는 어근 '길(다)'에 접사 '-이'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고 있다.
④ '나무꾼'은 어근 '나무'와 접사 '-꾼'이 결합한 단어이다.
⑤ '손발'은 어근 '손'과 어근 '발'이 결합한 단어이다.

13 '날고기'는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 '날-'과 어근 '고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나머지 단어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4 (1) 단일어는 어근,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뿐인 단어로, '구름'이 이에 해당한다.
(2)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어근 '비'와 어근 '옷'이 결합한 '비옷'이 이에 해당한다.
(3)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로, 접사 '짓-'과 어근 '누르다'가 결합한 '짓누르다'가 이에 해당한다.

15 '뛰놀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다.'라는 의미로, '뛰(다)'와 '놀다'가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보리차'는 어근 '보리'와 어근 '차'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새빨갛다'는 접사 '새-'와 어근 '빨갛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모두 복합어이다.
② '파도'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어근,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뿐인 단일어이다.
④ '종이인형'은 어근 '종이'와 어근 '인형'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김치찌개'는 어근 '김치'와 어근 '찌개'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16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라는 의미로, '높(다)'과 '푸르다'가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이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7 '망치질'은 '망치로 무엇을 두드리거나 박는 일.'이라는 의미로, 이때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18 '매우 짙고 선명하게'라는 뜻의 접사 '새-'가 사용된 단어는 '매우 까맣다'라는 의미의 '새까맣다'이다.

19 '콧등'은 '코'와 '등'이, '나뭇잎'은 '나무'와 '잎'이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되었다. '마소'는 '말'과 '소'가, '아드님'은 '아들'과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되었다.

20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야 한다. 제시된 단어 중 '개떡', '개살구', '개철쭉'은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사인 '개-'에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개털', '개집', '개밥'의 '개'는 명사로 어근에 해당하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21 합성과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부합하지만, 줄임말로 만들어진 새말의 경우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22 '인터체인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나들목'은 우리말이므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은 예에 해당한다.

23 '둘레길'은 사물의 테두리나 바깥 언저리를 의미하는 어근 '둘레'와 어근 '길'이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24 '혼밥'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로, '깜놀', '열공', '오운완', '소확행'이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세권'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이다.

25 '레포츠'는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옷프다'는 '옷기다'와 '슬프다'를,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를 결합한 새말이다. 이는 모두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강추'는 '강력 추천'에서,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며, '꽃미남'은 어근 '꽃'과 어근 '미남'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26 '취존'은 '취향'과 '존중'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므로, 새말이 만들어진 원리가 알맞게 짝 지어져 있다.

오답 풀이 ① '노래방'은 어근 '노래'와 어근 '방'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③ '이북(e-book)'은 단어를 우리말로 다듬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말 그대로 쓴 새말이다.
④, ⑤ '얼죽아', '버카충'은 각각 '얼어 죽어도 아이스커피', '버스 카드 충전'의 줄임말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27 '알수박'은 이미 있던 단어인 '알-'과 '수박'을 결합한 단어로, 이때 '알-'은 '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 '수박'은 어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생어에 해당한다.

28 제시된 단어는 모두 줄임말을 사용한 새말이다. 줄임말을 사용한 새말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언어 사용자들이 의사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29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으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게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30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의 '생'이 결합한 말을 보고,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갓생'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도 맞지 않아 새말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31 '그림말'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 '그림'과 어근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말'을 의미를 덧붙이거나 제한하는 접사로 분석하여 '그림말'이 파생어라고 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32 '스마트오더'는 우리말이 아니라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에 해당한다.

33 새말을 만들 때 줄임말을 통해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는 우리말 규범을 지켰는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4 새말을 사용할 때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기존의 우리말 단어가 있다면 이를 살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87~099쪽

093쪽 (1) × (2) ○ (3) ○

098쪽 (1) 더하다 (2) 가리다 (3) 달다

활동 마무리

100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⑤ 정리 확인 문제 02 ③

01 '민소매'는 '소매가 없는 윗옷. 또는 그런 소매.'라는 뜻으로, 날씨가 추워질 때가 아니라 더워질 때 민소매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02 파생어에서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주변 부분으로,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압축 파일

101쪽

❶ 단어 ❷ 형태소 ❸ 어근 ❹ 접사 ❺ 단일어
❻ 합성어 ❼ 파생어 ❽ 변화 ❾ 우리말 ❿ 뜻
⓫ 의사소통

발전 활동

102~103쪽

103쪽 인터넷, 일상

학습콕

102쪽

유행어, 언어 사용자, 사회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02~103쪽

102쪽 01 ③ 02 언어 사용자들이 그 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03 ①
103쪽 04 ④ 05 ①

01 새로 만든 단어가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짜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언어 사용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02 이 글에 따르면, 이미 새말로 인정받은 단어라도 언어 사용자들이 그 말을 선호하지 않으면 새말로서의 생명력을 잃는다고 하였다.

03 새말이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인터넷을 비롯해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신문이나 방송 등에도 자주 노출된다면 우리말 단어로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어떤 새말에 대해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떠올린다면 보편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04 감염병이 유행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단어들을 감염병이 줄어든 이후에는 잘 쓰지 않는다. 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던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05 새말이 오래 사용되려면 의미가 쉽게 이해되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화에 나타나듯 '삼귀다'라는 말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04~105쪽

01 ② 02 산, 꽃 03 ② 04 ① 05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은 'ㅅ'이 첨가되었고, ㉡은 'ㄹ'이 탈락되었다. 06 ①
07 ③ 08 ③ 09 ⑤ 10 ② 11 ①

01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산'을 'ㅅ', 'ㅏ', 'ㄴ'처럼 나누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형태소라고 볼 수 없다.

02 서술형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이고,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보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산'과 '꽃'이다.

03 '바다'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①은 '눈'과 '꽃', ③은 '오(다)'와 '가다', ④는 '밤'과 '나무', ⑤는 '옥수수'와 '차'가 결합한 것으로,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4 '베개'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 '베(다)'와 어근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5 서술형 ㉠에서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단어에는 없었던 'ㅅ'이 첨가되고 있고, ㉡에서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단어에는 있었던 'ㄹ'이 탈락되고 있다.

06 '라볶이'는 '라면'과 '떡볶이'가 결합한 단어이고, '쫄볶이'는 '쫄면'과 '떡볶이'가 결합한 단어로, 이는 모두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만들었다. 한편 '참치김밥'은 '참치'와 '김밥'이 결합한 단어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07 '개취'는 '개인의 취향'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고, '질문쟁이'는 어근 '질문'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개취'와 '질문쟁이'는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오답 풀이 ① '웃프다'는 '웃기다'와 '슬프다'의 일부분을 결합해서 만들었고, '먹부심'은 '먹다'와 '자부심'의 일부분을 결합해서 만들었다.
② '전자책'은 어근 '전자'와 어근 '책'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었고, '그림말'은 어근 '그림'과 어근 '말'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④ '많관부'는 '많은 관심을 부탁하다.'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었고,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었다.
⑤ '네티즌'과 '스마트폰'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새말이다.

08 '가리개'는 어떤 공간 따위를 가리기 위하여 세우는 가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말이므로, 이때의 접사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의미이다.

09 '레어템'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10 새말은 공식적인 말하기나 쓰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언어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말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11 새말이 전문적으로 쓰인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단어로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자주 노출되어 대중적으로 쓰여야 빠르게 새말로 정착할 수 있으므로 ㉠에 들어갈 말은 '대중적'이 적절하다.

02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어휘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06쪽

01 (1) 단어 (2) 매체 (3) 소통 **02** (1) ○ (2) × (3) × **03** ④

01 (1) 어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집합을 말한다.
(2) 어휘를 분류하는 기준은 세대, 전문 분야, 의사소통하는 매체 등이 있다.
(3) 우리말 어휘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므로,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해야 한다.

02 (2)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려고 쓰는 말로, 길고 자세한 것이 아니라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3) 모든 인터넷 언어가 새로 생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빠르고 재미있게 소통하기 위해 만든 단어도 많다.

03 '유선상'은 한자어이므로, 이를 분류하면 기성세대 언어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주로 쓰는 어휘가 아니므로 인터넷 언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

107~113쪽

108쪽 금일
109쪽 영어, 한자어
111쪽 전문가, 환자
113쪽 감정

학습콕

107~113쪽

107쪽 어휘
109쪽 오늘, 한자어, 청소년, 어른, 의사소통
111쪽 외국어, 소속감, 쉽게
113쪽 그림, 새말, 세대, 무분별, 말하는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07~113쪽

107쪽 **01** ④ **02** ③ **03** 오늘까지 제출
108쪽 **04** ③ **05** ③
109쪽 **06** 대화 상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07** ④
110쪽 **08** ③ **09** ④ **10** ①
111쪽 **11** ② **12** ③
112쪽 **13** ② **14** ③
113쪽 **15**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감정을 강조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 **16** ⑤ **17** ①

01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어휘의 분류 중 분야별 어휘에 속할 수 있다.

02 업체는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말을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객은 이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고 있다. 즉 고객은 '심심하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03 '금일(今日)'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이라는 의미로 '오늘'을 뜻한다. 따라서 ㉠은 '오늘까지 제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4 [A]와 [B]는 모두 할머니의 생신을 맞아 친척들을 집에 초대한다는 소통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소통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다.

05 청소년어도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생파'는 '생일(생신) 파티'의, '생선'은 '생일(생신) 선물'의, '생축'은 '생일(생신) 축하'의 줄임말이다.
② 모두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으로,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어에 해당한다.
④ 청소년들이 인터넷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⑤ 청소년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다.

06 준우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는 할머니의 세대를 고려해서 줄임말 대신 '생신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한 세대인 지우에게는 '생일 선물'의 줄임말인 '생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같은 의미로 말하더라도 대화 상대에 맞추어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다른 세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어휘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른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언어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08 의사는 의료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 같은 의료 분야에 속해 있는 간호사는 이를 이해하고 있고, 의료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환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9 '디스펩시아'는 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표현한 말로,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어이다. 따라서 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의 의미로 해석된다.

오답 풀이 ①, ② '디스펩시아'는 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로, 소화 불량을 뜻하는 의학 용어이다.
③ 의료 분야의 전문어이므로 같은 의료 분야에 속한 의사와 간호사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 전문어를 함께 사용하면 같은 집단 구성원끼리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10 ⓐ는 인공 지능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긴 후 이와 관련하여 새로 생긴 전문어이다. 이는 특정 집단 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며, 새로운 분야가 생김에 따라 새로 나타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11 (나)에서 의사가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 설명이 길어지는 대신 환자는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있다. 짧은 말로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전문어를 사용하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12 '오금 당기기'와 '맞배지기'는 씨름 분야의 전문어로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기성세대인 할아버지께 청소년어에 대해 설명했던 경험에 해당한다.
②, ④, ⑤ 한자어를 잘 몰랐던 경험에 해당한다.

13 (아)의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또한 가족들은 '헐', '쾌오', '1도 모르겠다' 등의 인터넷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다양한 분야의 단어는 나타나지 않으며 일상적인 단어와 인터넷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ㄹ. 'ㅅㅏ', 그림 문자 등을 사용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ㅁ. 특정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비교적 여러 세대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언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14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빠르고 재미있게 소통하기 위한 단어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15 제시된 바와 같이 단어를 고쳐 쓰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감정인 '최고'나 '소름' 등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

16 우리말 어휘는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어휘가 변화한다고 해서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쓰는 음성, 문자,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학급 회의와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휘를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잘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③ 할아버지가 자주 사용하시는 어휘에 대해 여쭤 본 것은 다른 세대의 어휘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태도이다.
④ 축구 관련 용어는 축구와 관련된 전문어에 해당하므로,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아직 사전에 실리지 않은 어휘를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07~113쪽

108쪽 (1) 가없는 (2) 조촐하게 (3) 평안
112쪽 (1) ○ (2) ○ (3) ×

활동

114~115쪽

114쪽 한자어, 청소년

학습콕

115쪽

변화, 소통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14~115쪽

114쪽 01 ① 02 ③ 03 ⓐ 인터넷 언어, ⓑ 전문어
115쪽 04 ③ 05 ③

01 (가)에서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고, (나)에서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이 잘 모르는 인터넷 언어와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가)와 (나)에서는 모두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2 '각고'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쓴다는 뜻이고, '전심전력'은 온 마음과 온 힘을 한곳에 모아 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은 '어려움을 견디고'로, ㉡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로 풀어 쓸 수 있다.

03 '캐리'와 '브이로그'는 인터넷에서 주로 쓰는 인터넷 언어에 해당한다. '윈드 스프린트'는 체육 분야의 전문어에 해당한다.

04 태빈은 부모님이 청소년어를 잘 모르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해미는 영화 관련 전문어를 영화 동아리 외의 친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자신이 쓰는 어휘를 상대방이 잘 모를 때는 상대를 고려하여 쉽게 설명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5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를 동일한 언어로 통일할 수 없고, 통일을 해야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언어를 이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②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④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⑤ 다양한 집단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대화를 잘 이어 나갈 수 있다.

활동 마무리

116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④ 정리 확인 문제 02 ⑤

01 '특히 젊은 [ ]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라는 문장의 빈칸에는 '분야'보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02 의사소통을 할 때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의 어휘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과 사회의 어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압축 파일

117쪽

❶ 세대 ❷ 분야 ❸ 매체 ❹ 청소년어 ❺ 기성세대
❻ 어휘 ❼ 전문어 ❽ 인터넷 ❾ 소통

발전 활동

118쪽

인터넷, 전문가

학습콕

118쪽

검색, 책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18쪽

01 ② 02 ①

01 '넘사벽'은 방송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전문어라고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어이자 새말로 볼 수 있다.

02 ㉠에 따르면 '롱 테이크'는 길게 지속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마지막 장면을 끊지 않고 길게 이어서'라고 바꾸어 쓸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19~12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⑤ 06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같은 집단 구성원끼리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⑤ 12 ③

01 (마)에 따르면, 청소년도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에 맞게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른들 역시 청소년과 대화할 때는 청소년이 즐겨 쓰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각자의 언어로만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어가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어른들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세대, 전문 분야, 의사소통하는 매체에 따라 어휘가 쓰이는 모습이 다양하다고 하였다.

02 [A]에서 깨비는 초대장을 받는 사촌 동생들에게 대화를 건네듯이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B]에서 깨비의 아버지는 초대장을 받는 형님, 누이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며 예의를 갖춰 표현하고 있다.

03 (나)와 (다)에서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한자어를 10대나 20대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 세대의 언어로만 말하려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04 한자어 '심심(甚深)하다'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업체가 사용한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말은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5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려고 쓰는 말이므로, 해당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를 수 있다.

06 서술형 전문어를 쓸 때의 좋은 점은 (나)에 나타난다. 전문어는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전문어를 함께 사용하면 같은 집단 구성원끼리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07 [A]에서는 의학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B]에서는 이를 누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08 전문어는 해당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09 ㉡은 인공 지능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전문어이므로,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표현하기 어렵다.

10 (가)에 표시된 어휘는 인터넷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인 인터넷 언어이다. (나)에 따르면 인터넷 언어는 비교적 여러 세대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으며,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는 어휘이다.

11 (다)에서 우리말 어휘는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번 익히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2 '각고'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은 '각자 기대하며'가 아니라 '각자 노력하며' 등으로 고쳐 쓸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22~125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① **06** ②
07 ⑤ **08**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하였다. **09** ④
10 ③ **11** ③ **12** ⑤ **13** ① **14**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다른 세대의 언어 사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15 ② **16** ④ **17** ③

01 '는'과 '를'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로, 단어로 인정한다.

오답 풀이 ② '풋사과'를 형태소로 나누면 '풋-'과 '사과'로 나눌 수 있다.
③ '집었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집-', '-었-', '-다'로 나눌 수 있다.
④ '냉큼'은 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⑤ '나'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02 '내밀었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내밀-', '-었-', '-다'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내밀-'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그'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② '는', '에게', '를'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③ '나무꾼'은 '나무'와 '-꾼'이 결합한 단어로, '나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고, '-꾼'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⑤ '금도끼'는 '금'과 '도끼'가 결합한 단어로, '금', '도끼'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03 '헛소리'는 접사 '헛-'과 어근 '소리'가 결합한 단어이고, '가시방석'은 어근 '가시'와 어근 '방석'이 결합한 단어이다. 따라서 '헛소리'는 어근이 1개, '가시방석'은 어근이 2개로, 어근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04 ㉡ '맨입'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한 입이라는 뜻이므로, '부드럽고 매끄러운'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 접사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고 있다.

05 〈보기〉는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인 '더치페이'를 우리말인 '각자 내기'로 바꾸어 사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모티콘'이라는 외국에서 가져온 새말 대신에 우리말인 '그림말'을 사용하는 예가 〈보기〉와 가장 유사하다.

06 '금손'은 어근 '금'과 어근 '손'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누리꾼'은 어근 '누리'와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둘레길'은 어근 '둘레'와 어근 '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배낭족'은 어근 '배낭'과 접사 '-족'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줄임말이므로 합성어라고 볼 수 없다.

08 서술형 '엄빠'와 '먹부심'은 모두 줄임말로,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것이다.

09 '레어템'의 '레어(rare)'는 '희귀한'이라는 뜻이고, '아이템(item)'은 '물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단어가 지닌 본래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본래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③ '레어'라는 단어와 '아이템'이라는 단어의 일부를 결합하였으므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레어템'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섞어 만든 새말이므로, 우리말 단어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은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면 바꾸어 쓰고, 우리말 단어의 짜임을 고려해서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보기〉에서 새말이 인정받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설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한 ③이 〈보기〉를 바탕으로 한 예측으로 가장 적절하다.

12 제시된 상황은 '심심한 사과'를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가 아닌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라고 생각하여 화를 내는 모습이다. 이때 '심심(甚深)'은 한자어이므로, 제시된 상황은 청소년어가 아닌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13 (다)에 따르면,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차이가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다)에서 청소년도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대장을 받는 상대가 어른인 깨비의 삼촌이라면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생파', '생선', '생축'은 청소년어로, 이러한 어휘도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또 변화할 수도 있다.
④ '깨비의 초대장'은 청소년어의 특성이,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은 기성세대 언어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⑤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에 익숙한 세대는 기성세대이다. (다)에서 어른들도 청소년과 대화할 때는 청소년이 즐겨 쓰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14 서술형 깨비는 청소년어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할머니는 앞으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다른 세대의 언어 사용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5 우리말의 다양한 어휘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쓰는 언어이므로, 평소에 대화할 때 이를 되도록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제시된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아빠, 엄마, 동생이 모두 인터넷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즉 여러 세대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다양한 분야의 전문어가 아닌 인터넷 언어가 주로 나타난다.
② 짧은 말로 상세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나타난다.
③ 이 대화는 일시적인 상황만 담고 있으므로 어휘가 변화하는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여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언어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17 전문어를 사용할 때의 좋은 점은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사람은 전문어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고, 소속감이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4 나를 돌아보는 내 마음의 거울

문학으로 성장하는 우리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28쪽

01 (1) ○ (2) × (3) ○ 02 내면화 03 ②

01 (2) 독자는 문학 작품에 그려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방식을 접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모습 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02 독자는 문학을 감상하며 발견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03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다. 따라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에 비해 시공간, 등장인물의 수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학습콕

129~141쪽

130쪽 청각 장애인, 서낭당, 복선
132쪽 단오장, 순수, 화상 전화기, 소외감
135쪽 불의, 차별, 수어
136쪽 인공 와우 수술, 소외감, 대화, 축구
138쪽 소리, 긍정적, 소원, 사랑
140쪽 수술, 노력
141쪽 나자르 본주, 소통, 갈등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29~141쪽

129쪽 01 ③ 02 ②
130쪽 03 ⑤ 04 ⑤ 05 나자르 본주
131쪽 06 ④ 07 ③ 08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132쪽 09 ④ 10 ⑤
133쪽 11 ④ 12 ③ 13 ⑤
134쪽 14 ⑤ 15 ⑤
135쪽 16 소외감, 차별 17 ③ 18 ④
136쪽 19 ⑤ 20 ④ 21 소리가 듣고 싶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싶어.
137쪽 22 ④ 23 ⑤ 24 ⑤
138쪽 25 ② 26 ④ 27 ④
139쪽 28 ⑤ 29 ③
140쪽 30 ④ 31 ① 32 ④
141쪽 33 ④ 34 부적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홀가분해진 걸음을 성큼성큼 옮긴다.

01 보리가 집 앞 골목에서 할머니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보아, 보리는 청각 장애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2 서낭당에 도착한 보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빈 후,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학교 가는 길이 아니지만 소원을 빌기 위해 일부러 서낭당에 다녀간 것을 통해 보리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다)에서 '불꽃놀이'에 대한 은정과 보리의 대화로 보아, 보리가 불꽃놀이에 가서 소원을 빌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불꽃놀이'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04 가족들을 잃어버린 보리는 단오장 종합 안내소 앞에 서지만, 방송을 해도 가족들이 들을 수 없기에 경찰서로 향한다.

05 보리는 '나자르 본주'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외국인 상인에게 구입한다. 따라서 '나자르 본주'는 소원을 간절히 이루고 싶은 보리의 의지와 염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06 보리는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면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보리는 혼자 상점에 들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했을 것이다.

07 가족을 잃어버리고 찾아간 경찰서에서 크게 울다가도 짜장면을 먹자는 말에 조금씩 울음을 그치는 보리의 모습에서 어린아이다운 순수함과 천진함이 드러난다.

08 화상 전화기는 화면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다.

09 보리는 수어로 즐겁게 대화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방으로 가서 자신의 귀를 만진다. 이처럼 행동한 까닭은 보리가 자신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리는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10 보리는 가족들 중에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11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수어로 대화한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고 싶어 하던 보리의 고민은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12 정우는 축구할 때 빼고는 친구들과 잘 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친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에서 정우는 축구를 잘하지만, 안 들린다는 이유로 후보 선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② (아)에서 정우는 축구할 때 빼고는 친구들과 잘 놀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⑤ (아)에서 정우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자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하였다.

13 정우는 차별에 굴하지 않고 축구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 혼자서도 꾸준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정우가 의지가 강하고 꿋꿋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14 은정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보리의 대답을 통해 보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④ 축구를 잘하는 정우가 후보 선수가 된 것에 화를 내는 은정의 모습에서 정의로운 성격이 드러난다.
②, ③ 은정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는 보리를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

15 가족들과 같아지기 위해 소리를 못 듣는 척했던 보리는 정우가 학교나 축구팀에서 겪는 차별을 알게 되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16 보리는 수어로 대화하는 가족들을 보며 소외감을 느껴 소리가 안 들리는 척했으나, 정우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을 알게 되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

17 (타)에서 의사는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는 보리가 실제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안 들리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정우가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을 때 자동차 경적, 경보음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9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좋아하는 축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한다. 또한 청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다.

20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초조해한다. 따라서 보리가 정우에게 인공 와우 수술을 받도록 설득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정우는 보리의 표정만으로 보리의 고민을 알아챈다.
②, ⑤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경험한 일들로 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계속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한다.
③ 보리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정우의 생각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21 (파)의 마지막 부분에 소리를 듣는 것 자체보다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정우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2 고모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정우가 수술을 받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23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은지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다.

24 ㉦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이 글의 주제에 해당하며 보리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 아빠는 보리가 가족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25 엄마와 아빠는 보리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도 보리의 수어 실력을 칭찬한다. 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의 긍정적인 태도와 다정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26 보리는 수술을 하면 정우가 축구를 못 하게 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자신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에 놀란 가족들은 ⓒ처럼 반응한 것이다.

27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보리는 안도감과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의 소외감, 긴장감, 서운함 같은 다양한 감정이 동시에 쏟아져 나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린 것이다.

28 정우가 주전 선수 자리를 되찾은 것은 은정 아빠의 도움이 아닌, 정우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다.

29 정우가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주전이 된 것을 알게 된 보리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⑤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은 보리가 엄마,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해당한다.

30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대사는 (V. O.)로 처리되어 있다. V. O.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나 소리를 나타내는 용어이므로, 아나운서의 표정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 작품의 전개상 중요한 순간에 공을 찬 결과를 알려 주지 않고 화면을 검게 처리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2 그동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정우는 친구들이 은메달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게 된 것에 기분이 좋아 웃고 있는 것이다.

33 소리가 안 들리게 되고 싶다는 소원이 필요 없어진 보리는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버린다. 따라서 (머)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단원' 단계에 해당한다.

34 보리는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샀던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던진다. 이를 통해 보리가 더 이상 소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민이 해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29~141쪽

129쪽 (1) ○ (2) ×
132쪽 (1) S# (2) V. O.
134쪽 (1) 주전 (2) 이장
139쪽 (1) × (2) ○

활동

143~145쪽

143쪽 꿈, 수어, 소통
144쪽 사랑, 노력, 아름다움, 정우
145쪽 축구

학습콕

145쪽

감동, 깨달음, 내면화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43~145쪽

143쪽 01 ④ 02 ㄴ, ㄹ 03 ⑤
144쪽 04 ③ 05 ④
145쪽 06 ⑤ 07 ②

01 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정우의 상황을 가족들에게 전한다. 이를 통해 정우를 아끼고, 정우의 꿈을 지켜 주고 싶어 하는 보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02 정우는 후보 선수가 되었음에도 혼자 축구 연습을 할 만큼 축구에 대한 열의가 있다. 또한 친구들이 모두 수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어 한다.

오답 풀이 ㄱ. 축구를 잘하는 정우가 후보 선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화를 내는 은정의 특징이다.
ㄷ.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한편, 보리의 수어 실력이 늘었다고 칭찬하는 엄마, 아빠의 특징이다.

03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깨달은 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자르 본주'를 바다에 던져 버린 것이다.

04 보리는 정우가 주전 자리를 되찾는 과정을 지켜보며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작은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는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이 글에서 보리가 정우의 축구 감독님을 찾아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06 보리는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고민을 해결한다. 따라서 보리가 가족들을 위해 외로움을 참고 견디기로 한 것은 아니다.

07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발견한 문학의 가치를 삶에 적용하고 내면화하여 삶을 더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활동 마무리

146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⑤ 정리 확인 문제 02 ③

01 '즐비하다'는 '빗살처럼 줄지어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추위로 인해 외출을 피한다는 ⑤의 내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02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읽는 효과에 해당한다.

압축파일

147쪽

❶ 소원 ❷ 나자르 본주 ❸ 축구 대회 ❹ 꿈
❺ 축구 ❻ 소통 ❼ 사랑 ❽ 은정 ❾ 소리
❿ 갈등

발전 활동

148~151쪽

151쪽 칭찬, 아버지, 짐, 양심

학습콕

150쪽

정당화, 자책, 도둑놈, 고향, 주인 영감, 수길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48~151쪽

148쪽 01 ⑤ 02 ③
149쪽 03 ④ 04 ③ 05 ①
150쪽 06 ④ 07 누런 똥빛
151쪽 08 ③ 09 ④

01 (가)에서 수남은 숨을 고른 후 자전거를 들고 달려온 까닭을 주인 영감께 고해바친다.

02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서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해하며 수남을 칭찬하고 있다.

03 수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서, 주인 영감이 자신을 바른길로 이끌어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 영감의 손길에 거부감을 느낀다.

04 (다)에서 수남은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친 일을 떠올리며, 도둑질을 한 것과 도둑질을 하며 기쁨을 느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05 (다)에는 낮에 자신이 한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는 수남의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06 수남은 도둑질을 저지른 형과 금전적 이익만 중시하는 주인 영감을 부도덕적인 사람으로, 수남에게 도둑질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아버지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07 수남은 도덕적 양심보다 금전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 영감의 얼굴빛과, 도둑질을 한 형의 얼굴빛을 '누런 똥빛'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08 형이 했던 잘못을 반복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낀 수남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형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수남은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한다. 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것은 아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48~151쪽

148쪽 (1) 필시 (2) 자초지종 (3) 회심
150쪽 (1) ○ (2) ○ (3)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52~155쪽

01 ② 02 ④ 03 순진하고 아이답다. 04 ③
05 ⑤ 06 ⑤ 07 ⑤ 08 ④ 09 ② 10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11 ③ 12 ③ 13 ④
14 부도덕성(비양심성) 15 ④

0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 시나리오이며,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쓴 대본은 희곡이다. 시나리오는 희곡에 비해 등장인물의 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02 (다)에서 경찰관은 가족을 잃어버려 당황스러운 마음에 울고 있는 보리를 따뜻하게 달래 주고 있다.

03 서술형 가족을 잃어버린 후 경찰서에 가서 울면서도 짜장면에 관심을 보이는 보리의 모습에서 순진하고 아이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4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보리는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거짓말을 한다. 따라서 보리가 실제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엄마, 아빠는 보리의 수어 실력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 칭찬하였다.
②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에서 의사는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보리는 의사의 말을 통해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⑤ (다)에서 의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동차 경적이나 경보음은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05 (라)에서 엄마와 아빠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보리를 보며 슬퍼하지만, 이내 수어 실력이 좋아진 것에 대해 칭찬한다. 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는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빠는 들리든 안 들리든 똑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보여 준다.

06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가족들 중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07 보리는 자신의 수어 실력을 칭찬하는 엄마와 아빠의 말에,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보리는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보다는 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08 이 글은 청각 장애를 가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보리가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웃과의 갈등이나, 현대 사회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문학의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나자르 본주의 효과는 새로운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학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10 서술형 ㉠은 정우가 공을 차는 중요한 순간에 화면을 검게 처리하여, 정우가 찬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는지 보여 주지 않는 방식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1 보리가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던진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주는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고, 부적 없이도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자르 본주가 미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12 수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 실망했을 뿐, 자전거를 들고 달려온 까닭을 설명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13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을 반성하고, 자신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수남의 반성과 성장 과정은 잃어버린 도덕성을 극복하고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14 서술형 수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그의 얼굴빛을 '누런 똥빛'으로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과 물건을 훔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형의 얼굴빛도 같은 색으로 느낀다.

15 수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칭찬해 준 주인 영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에 대한 죄책감이 드러난다.
② 도덕적 양심보다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남의 혐오감이 드러난다.
③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고민하며 갈등한다.
⑤ 수남이 낮에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양심을 회복한 모습이 드러난다.

12 진솔하게 그린 나의 마음

학습콕

156~157쪽

156쪽 증조할머니
157쪽 휴전 협정, 실향민, 이산가족, 위안, 공감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56~157쪽

156쪽 **01** ② **02** 전쟁이나 이산가족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57쪽 **03** ⑤ **04** ④ **05** ③

01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할아버지이다. '나'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할아버지는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실향민이라고 하였다.
③ (가)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방에 있는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본다.
④ (나)에서 삼촌은 이북 5도민 단체에서 준 황해도 연백의 흙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방에 있는 사진을 그림으로 착각하고 그림의 정체를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02 글쓴이는 (다)에서 "전쟁이나 이산가족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처럼 생각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03 육이오 전쟁 중, 증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남쪽에 데려다 놓고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러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 사이에 휴전 협정이 맺어져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할아버지는 열세 살의 나이에 실향민이 된 것이다.

04 철쭉꽃을 좋아한 것은 '나'의 엄마가 아닌 증조할머니이다.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는 증조할머니가 좋아한 철쭉꽃이 피어나서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나무이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공감하고 슬퍼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만나게 된 경험과 이로 인한 기쁨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고 속상해한다.
② '나'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본 사진에 대해 궁금해한다.
④ '나'는 삼촌과 할아버지가 통 속의 흙을 바라보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다.
⑤ '나'는 할아버지와 심은 철쭉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그 꽃이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56~157쪽

156쪽 (1) 실향민 (2) 휴전 협정 (3) 이산가족

활동

158~164쪽

158쪽 감동, 경험, 정서, 긍정적
159쪽 사진, 흙, 눈물, 철쭉나무, 엄마
160쪽 주제
161쪽 전쟁, 철쭉꽃
162쪽 즐거움, 삶, 맞춤법
163쪽 흙을 담은 통, 내레이션

학습콕

158~164쪽

159쪽 글감, 독자, 정서
160쪽 배열, 삭제, 개요
163쪽 주제, 경험, 기준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58~164쪽

158쪽 01 ④ 02 ③ 03 ③
159쪽 04 ① 05 ④ 06 ⑤
160쪽 07 ① 08 ④
161쪽 09 ⑤ 10 ⑤ 11 ③
162쪽 12 ③ 13 ⑤ 14 독자
163쪽 15 ③ 16 ③
164쪽 17 ⑤ 18 ③ 19 ④

01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의 글감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02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글감을 고를 때는 자신의 경험 중 즐거웠던 일, 후회되는 일, 감동적인 일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신형 휴대 전화의 새로운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보다 설명하는 글의 글감으로 더 적절하다.

03 제시된 내용은 '해양 박물관에 다녀왔던 일'이 독자가 흥미를 가지기에 적합한 내용인지 고려하며, 해양 생태계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04 축구 선수들의 재미있는 일화는 꾸준한 연습의 중요성을 말하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글에 담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독자를 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글감을 선정한다. 또한 글에 쓰고 싶은 내용, 자신이 느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06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에 어긋나거나 내용 전개상 불필요한 내용, 다른 단락과 중복되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삭제할 수 있다. 주관적인 생각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제시된 개요는 축구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에서는 다양한 축구 전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5학년 때 축구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경험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③, ④ ㉢과 ㉣에는 자신이 실수한 경험을 통해 느낀 속상함을 표현하고, 한동안 축구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⑤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는 축구를 다시 시작한 계기를 추가할 수 있다.

08 개요를 작성하면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풀이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는 글감을 고르고 내용을 생성하기 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맞춤법에 맞게 쓰거나 참신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9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제목은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10 '할아버지와 나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로 고치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다.

11 ㉠은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다.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열세 살의'로 고쳐 써야 한다.

12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담은 글이므로, 글의 내용이 독자가 경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13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경험과 정서,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14 제시된 내용은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인지를 고려하여 고쳐 쓸 계획을 세운 것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기준 중 독자와 관련 있다.

15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짓는 장면에서는 할아버지의 슬픔이 드러나므로, 쓸쓸함이 느껴지는 바람 소리나 차분한 음악 등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배경 음악을 활용할 때는 이 장면의 정서와 내용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7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유형으로 바꿀 때, 자신의 삶과 경험, 정서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다면 반드시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

18 자신이 쓴 글을 만화로 바꿀 때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

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는 글에서 허구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을 쓴 친구의 결과물을 보았을 때는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활동 마무리

165쪽

어휘 확인 문제 **01** ⑤ 정리 확인 문제 **02** (1) ㉢ (2) ㉠ (3) ㉡

01 '실향민'은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평생 고향을 떠난 적 없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02 (1)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글감으로 정하고, 글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는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2) 자신의 삶과 경험, 정서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글에 담을 내용을 조직하고, '처음–가운데–끝'의 형식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3) 개요에 따라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고, 주제나 목적, 독자, 표현 등을 점검하여 고쳐 쓰는 것은 '글 쓰고 고쳐 쓰기' 단계이다.

압축 파일

166쪽

❶ 사진 ❷ 실향민 ❸ 흙 ❹ 철쭉나무 ❺ 증조할머니
❻ 위안 ❼ 글감 ❽ 조직 ❾ 개요 ❿ 목적
⓫ 자아 ⓬ 공감

발전 활동

167~168쪽

167쪽 선생님, 진솔
168쪽 정서, 가사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67~168쪽

167쪽 **01** ① **02** ② **03** ②
168쪽 **04** ② **05** ⑤ **06** ④

01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했던 일'은 일상적인 경험으로서, 특별한 깨달음이나 감동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노래 가사로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경험과 거리가 멀다.

02 제시된 경험은 담임 선생님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었던 경험이다. 이 경험을 노래로 만들 때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 등을 담을 수 있다.

03 경험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노래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유행하는 음악 장르에 속할 필요는 없다.

04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래 가사를 쓸 때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느낀 점, 정서 등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05 노래 가사는 주로 리듬감이 있는 언어 표현을 활용한다. 또한 비유나 상징과 같은 시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06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는 글은 기사문이다. 진솔한 정서를 표현하는 노래 가사를 점검할 때는 육하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69~170쪽

01 ② **02** ② **03** 통 속의 흙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⑤ **09** ④ **10** ④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 아닌, 글쓴이가 할아버지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02 (나)에서 삼촌이 황해도 연백의 흙이 담긴 통을 가져온 것을 계기로, '나'는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보기〉는 (나)의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3 서술형 (다)에서 할아버지는 삼촌이 가져온 '통 속의 흙'을 만지며 이산가족이 된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통 속의 흙'은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04 ㉤은 가족에 대한 할아버지의 그리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나'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05 글쓴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철쭉나무를 심으며 할아버지를 위로했던 경험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썼을 것이다.

06 ⓕ의 내용은 (라)에 나타나는데, (라)에서 글쓴이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린 기쁜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7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 뒤에는 글의 주제나 목적, 독자, 표현 등을 점검하여 고쳐 써야 한다. 글의 근거는 주장하는 글을 점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08 [A]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글에 담을 내용을 조직하고, '처음–가운데–끝'의 형식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 글을 읽을 독자를 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글감을 정리하는 일은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09 마라톤 대회에서 함께 뛰어 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편지 글에서, 마라톤을 연습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10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을 영상으로 바꿀 때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보는 이의 몰입을 돕기 위해 영상 내용에 알맞은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을 삽입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71~175쪽

01 ③ **02** 나자르 본주 **03** 보리는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04** ⑤ **05** ③ **06** ⑤ **07** ③ **08** 보리의 갈등이 해소되어 소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09** ⑤ **10** ③ **11**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12** ③ **13** ④ **14**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15** ⑤ **16** ④ **17** ④ **18** ㉠, ㉢, ㉡ **19** ⑤

0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리오로, 운율을 구성하는 요소에 주목하여 읽는 것은 시를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02 서술형 보리는 외국인 상인에게서 나자르 본주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자르 본주를 구입한다. 따라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향한 보리의 의지와 염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는 나자르 본주이다.

03 서술형 보리는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가)에서 가족들이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마)에서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소리를 잃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리는 자신도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04 다른 가족들과 달리, 보리는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껴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은 자신만 가족들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느끼는 보리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지, 집에 혼자 있을 때의 기분을 나타낸 말은 아니다.

05 정우는 다른 선수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 선수가 된 것이다. 이는 청각 장애인인 정우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을 보여 준다.

06 정우는 축구 대회에 나가기 위해 수술을 포기할 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하지만 정우가 수술을 받기 위해 축구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07 보리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임을 알면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정우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08 서술형 (마)에서 보리는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다는 듯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이는 보리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어, 고민이 해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09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 주인공 수남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10 이 글에는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고민하는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11 서술형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의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영감의 열굴빛인 '누런 똥빛'은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셨다는 것은 수남의 부도덕성이 해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2 이 글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쓴 수필이다. 수필을 감상할 때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표현된 정서에 공감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⑤ 설명하는 글, ② 소설이나 시나리오, ④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13 고향을 그리워할 할아버지를 위해 황해도 연백의 흙을 가져온 사람은 '나'가 아닌 삼촌이다.

14 서술형 '나'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나무의 이름을 '엄마'라고 짓자고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15 할아버지가 통 속의 흙을 만지는 장면에서는 이산가족이 된 증조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므로, 밝고 경쾌한 선율의 노래에 가사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이 글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므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글감으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글감을 고를 때는 독자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너무 일상적인 내용은 특별한 감동이나 깨달음을 전하기 어려우므로 글감으로 적절하지 않다.

18 서술형 '처음'에는 운동을 즐기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들어간다. '가운데'에는 내용의 흐름상 축구를 한동안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나와야 하므로 ㉢이 들어간다. '끝'에는 다시 축구를 시작한 이후의 경험이 나와야 하므로 ㉡이 들어간다.

19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독자는 글에 나타난 경험에 공감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⑤는 설명하는 글을 쓸 때의 효과에 해당한다.

1 문학과 매체로 여는 소통의 창

깊이 감상하고 넓게 표현하기

간단 복습 문제

03쪽

쪽지 시험 01 ○ 02 ○ 03 × 04 생기 있는 05 반복 06 피아노를 치는 07 빗방울 08 ㉡ 09 ㉠ 10 ㉢, ㉡

어휘 시험 01 간밤 02 새벽 03 청산 04 내 05 맺혀 06 참신함 07 생생하게 08 유사했다 09 ㉡ 10 ㉠ 11 ㉢ 12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4~05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⑤ 06 ④ 07 수미상관 08 ④ 09 ① 10 ⑤

01 말하는 이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이 시는 '쫑쫑', '톡톡' 등의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고, '가장', '고운', '노래' 등의 단어를 반복하고, '-골라 -ㅂ니다' 등의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수미상관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ㄹ. 비유적 표현은 운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3 ㉠은 직유, ㉡은 은유를 사용한 표현이다.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04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활유이다. 이 시에서 활유가 사용된 부분은 '기쁜 일만 팔짝팔짝 / 뛰어다닙니다.'와 '고운 노래만 풀풀 / 날아다닙니다.'이다.

05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6 4연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갈 것을 다짐하면서 말줄임표를 사용해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평온하지 않은 상태인 긴장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서술형 1연을 5연에서 반복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는 수미상관의 구조이다. 수미상관 구조는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08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조 관념만 드러난다. 따라서 시어가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으며, 시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9 이 글은 틸틸과 미틸이 꿈에서 파랑새를 찾아다니다가 집에서 파랑새를 찾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틸틸과 미틸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틸틸은 파랑새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파랑새를 할머니에게 건넨다.
③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꿈에서 모험을 하는 동화적인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철학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④ (다)에서 소녀는 파랑새가 날아가자 울상을 짓지만, 틸틸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고 하며 소녀를 위로한다.
⑤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아가는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10 이 글의 마지막에서 틸틸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거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파랑새가 행복을 상징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06~07쪽

1단계 01 봄날 아침 02 영탄법 03 활유 04 숲, 마을 05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

2단계 06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참신하게(생생하게 또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07 말하는 이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08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보다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작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두 가지)

3단계 09 비유 중 은유를 사용하였으며, 원관념은 사춘기의 혼란스러운 마음, 보조 관념은 빨래 건조대이다. 10 파랑새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상징한다.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 램프는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파랑새와 같은 의미를 지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단계

01 이 시는 봄비가 내린 후의 아침 풍경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노래하고 있다.

02 감탄사 등을 사용해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영탄법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는 감탄사 '아-'를 사용해 말하는 이의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03 '기쁜 일만 팔짝팔짝 / 뛰어다닙니다.'와 ' 고운 노래만 풀풀 / 날아다닙니다.'에서 '기쁜 일'과 '고운 노래'는 살아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활유라고 한다.

04 (나)에서 말하는 이가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어서 가고자 하는 곳은 '숲'과 '마을'이다. '숲'과 '마을'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이므로 평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5 이 시의 3연에 나타나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를 상징한다.

2단계

06 '즐거운 노래'는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더 참신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인상 깊게 나타낼 수 있다.

07 이 시에서 '길'은 말하는 이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새로운 길'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08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징을 사용하면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보다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3단계

09 창작 시는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비유한 은유를 사용하였으며, 사춘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빨래 건조대에 비유하고 있다.

평가 목표	비유의 종류와 특성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비유 중 은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쓰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20점] ✓ 비유 중 은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쓰고, 원관념과 보조 관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10점]

10 파랑새는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는 램프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윤주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채점 기준	✓ 파랑새의 상징적 의미와 윤주의 말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바르게 쓴 경우 [20점] ✓ 파랑새의 상징적 의미만 바르게 쓴 경우 [10점]

2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하기

간단 + 복습 문제

09쪽

쪽지 시험 **01** 누리집 **02** 양방향 **03** 실시간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공유 **02** 매체 **03** 게시 **04** 정서 **05** 소비 **06** 당일 **07** 독자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0쪽

01 ① **02** ① **03** [A]는 학교 누리집이고 [B]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소통 공간이 지닌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04** ⑤

01 (가)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특정한 시간에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는 전달 매체만 다를 뿐, 모두 고궁 야간 개장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⑤ (가)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나)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 댓글을 확인하고 예매 관련 정보를 기사에 추가한 것과 같이 수용자의 의견을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가)는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나)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

02 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감상을 나눈 것은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한 소통이 아니다. 감상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올린다면 상호 작용적 매체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3 서술형 [A]는 학교 누리집으로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B]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들앙', '홈피' 등과 같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4 〈보기〉의 답변자는 고객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간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 또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서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11쪽

1단계 **01** 소통 목적 **02** 해시태그

2단계 **03** 댓글의 소통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를 받기 위한 동영상이 아닌데도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04** 사적인 경험을 기록하며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 **05**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는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보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친구에게 공개할 때는 신조어나 이모티콘 등을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1단계

01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는 소통 목적(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등)과 소통 공간(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02 게시물의 주요 단어에 해시(#)를 붙이면 연관된 정보가 묶여서 정보를 검색하기에 유용하다. 해시 뒤의 문구는 띄어 쓰지 않는다.

2단계

03 밑줄 친 댓글은 게시 글의 소통 목적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온 후의 사진과 느낌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상황이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사적인 경험을 기록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3단계

05 '신비'는 전체 공개의 글을 썼는데, 비교적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우주'는 친구 공개의 글을 썼는데 신조어나 이모티콘 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목표	독자를 고려한 언어 표현 사용하기
채점 기준	✓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할 때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친구를 독자로 할 때의 언어 표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30점] ✓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할 때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친구를 독자로 할 때의 언어 표현 중 하나만 바르게 쓴 경우 [2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2~15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①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③ 10 ⑤ 11 ③ 12 ⑤
13 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의 댓글이며,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4 ⑤ 15 ④ 16 ⑤
17 ③

01 (가)의 2연에는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비유한 직유가 나타나고, 그때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즐거운 노래에 비유한 은유가 나타난다. (나)에는 인생을 '길'로 표현한 상징이 나타나며 은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에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기쁨이 드러나고, (나)에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 '숲'과 '마을'을 향해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말하는 이의 희망이 드러난다.

03 (가)에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기쁜 일'과 '고운 노래'를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한 활유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가)에서는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이는 대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직유를 활용한 표현이다.

05 (가)의 밑줄 친 시어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와 모양을 흉내 낸 말인 의태어이다. (가)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운율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주제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게 하지는 않는다.

06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나)에는 '길', '고개', '숲' 등 상징적인 소재가 나타나지만, 상징은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관념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이 시에서 '길'은 인생과 삶을 의미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문장은 ①이다.

오답 풀이 ②의 '길'은 방향, 목적이나 전문 분야를 의미한다.
③의 '길'은 방법과 수단을 의미한다.
④의 '길'은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솜씨를 의미한다.
⑤의 '길'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미한다.

08 시어 '내'와 '고개'는 물이 흐르고 비탈져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경험은 '축구 대회를 앞두고 다리를 다쳐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험'이다.

09 이 글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인 '행복'을 구체적인 사물인 '파랑새'로 대신하여 작품 속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파랑새가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틸틸은 멀리서 찾던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늘 지내던 집이 갑자기 아름다워졌다고 하고, 항상 함께 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도 훨씬 멋있다고 한다. 이는 언제나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1 (가)는 학교와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나)는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이다. (가)와 (나)는 모두 누구나 글을 쓰고 공유할 수 있다.

12 학교 누리집은 주로 학교와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학년별 연간 일정이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 가장 적절하다.

13 서술형 (가)는 행사를 공지하고 홍보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의 글이다. 〈보기〉는 이와 같은 글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의견을 쓰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임에도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14 (나)는 쓰담 달리기를 하다가 강아지를 만났던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소통 목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가)의 블로그는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블로그와 이웃을 맺으며, (나)의 온라인 대화방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블로그와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모두 글, 사진, 동영상을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다.

16 (가)는 뮤지컬 「빌리 엘리엇」을 본 후 줄거리와 자신의 감상을 남기며 독자들에게도 뮤지컬을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뮤지컬을 관람할 때의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7 (나)에서는 대화방에 함께 소속된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에 댓글을 달면서 소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지혜

글 속에 숨은 생각 찾기

간단 + 복습 문제 17쪽

쪽지 시험 01 추론 02 글에 나타난 정보 03 이해, 이면적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설계 02 적막감 03 동강 04 정비했다
05 실시한다 06 화제 07 여유 08 위법 09 ㉢
10 ㉡ 11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8~19쪽

01 ⑤ 02 ③ 03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이나 휴대 전화를 보며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6 ③

01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이나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직접 밝히지 않기도 하므로 글을 읽을 때는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02 (다)에서 글쓴이는 공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때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추가하고 있지는 않다.

03 서술형 글쓴이는 가족, 이웃, 친구들과 소통하던 대청마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소통이 부재한 오늘날의 거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04 ⓐ는 '옛날 골목길'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가치관을 추론하고 있다. ⓑ는 동네 도서관에 갔었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하고 있다.

05 '옛날 골목길'과 〈보기〉의 '마루'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공간은 (나)의 '도로'이며, 이는 '옛날 골목길', '마루'와는 거리가 멀다.

06 샛길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길이고, ㉠의 푯말은 이러한 샛길의 통행을 막으려고 세운 것이다. 글쓴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20~21쪽

1단계 01 집, 길 02 공간 03 책장, 책, 식물 04 인위적 05 차량 통행을 우선시하게 되어서
2단계 06 '학생 1'은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지만, '학생 2'는 깨끗한 방에서 알찬 하루를 보낸다. 07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08 글쓴이는 도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영호는 도로를 이용해서 할아버지와 소통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단계 09 골목길이 불편한 공간이 되자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졌다.
10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공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1단계

01 이 글은 '집'과 '길'을 제재로, 공간을 가꾸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자신의 공간을 정리해야 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며, 독자에게 공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03 (다)에서 글쓴이는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책', '책장', '식물'은 거실에 두고, '텔레비전', '휴대 전화'는 내려놓자고 하였다.

04 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끊어 내고 산을 두 동강 내는 등 사람이 인위적으로 확장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05 차량 통행을 우선시하면서 골목길이 불편한 공간이 되자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였다.

2단계

06 (가)에서는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다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학생 1'과 깨끗한 방에서 알찬 하루를 보내는 '학생 2'의 사례를 대조해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07 ㉠과 ㉡은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의 문장으로, 글쓴이는 이를 사용하여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08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도로'에서 도로에 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영호는 도로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관점과는 반대일 것이다.

3단계

09 차량이 늘어나면서 골목길이 불편한 공간이 되자 사람들은 점점 집 안에서 생활하였고, 이웃과 함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글쓴이는 지금의 동네에 옛날 골목길과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고 있다.

평가 목표	글의 내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골목길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맞게 추론하고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골목길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다소 미흡하게 쓴 경우 [10점]

10 이 글은 소통의 공간을 만들 것을 말하고 있고, 〈보기〉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글의 글쓴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목표	글쓴이의 관점 추론하기
채점 기준	✓ 글쓴이가 추구하는 공간과 해당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맞게 추론하여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글쓴이가 추구하는 공간과 해당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소 미흡하게 쓴 경우 [10점]

02 실마리를 따라가며 듣기

간단 + 복습 문제 23쪽

쪽지 시험 **01** 발화 **02** 맥락 **03** 순서를 지키세요.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체험 **02** 실마리 **03** 규칙 **04** 사양하지 **05** 해석한 **06** 머뭇거리다가 **07** 청중 **08** 근거 **09** 양심 **10** 덧칠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4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② **06** ④

01 몸동작, 표정, 시선 등의 비언어적 표현 요소는 언어 표현에 덧붙어 의미를 전달하므로 담화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④ 사회·문화적 배경도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손님과 가게 주인이 서로 '이모', '언니'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외국인은 이런 말을 들으면 서로 친척 관계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02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한 동생을 꾸짖을 때는 '언제 끝낼래?'와 같은 발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의미라고 추론할 수 있다.

04 〈보기〉에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쓰레기가 없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호소하고 있다.

05 이 강연은 「포도」 그림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포도송이가 서로 다른 속도로 익는 것까지 생생하게 표현했다고 하였다. 즉 실제 포도송이가 익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다.

06 (나)에서 「포도」 그림은 먹색 하나로 꼬마 열매부터 검붉게 익어 가는 열매까지 모두 표현했다고 하였다. 즉 「포도」 그림은 먹색 하나만 사용한 것이며, 검붉은 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예술가인 신사임당은 뛰어난 관찰력을 토대로 「포도」를 그렸다.

③ 신사임당은 알알의 열매의 농도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서 익은 정도를 표현하였다.

⑤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 주는 「포도」는 오만 원권 지폐에 실려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25쪽

1단계 **01** 상황 맥락 **02** 화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화자의 목소리 크기나 속도, 표정, 몸동작 등을 고려해야 한다.

2단계 **03** (가)의 화자는 아내, 청자는 남편이며,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는 가뭄이 심하던 시기, 집이다. (나)의 화자는 은정, 청자는 민주이며,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는 소풍 가기 하루 전날, 학교이다. **04** (가)는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는 의미이고, (나)는 비가 와서 소풍을 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의미이다. **05** 승우의 발화는 '내 옆에 앉아.'라는 의미이다. 추론하며 들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나'와 승우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3단계 **06** 옛 그림을 지루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하며 감상하기를 바란다.

1단계

01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맥락은 상황 맥락이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02 추론하며 들을 때는 상황 맥락과 함께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담화에 나타난 정보는 화자가 반복하는 내용과 같은 언어적 표현, 화자의 목소리 크기나 속도, 표정, 몸동작과 같은 준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

2단계

03 (가)는 가뭄이 심하던 시기,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나)는 소풍 가기 하루 전날, 학교에서 은정과 민주가 담화를 나누고 있다.

04 (가)에서 아내는 비가 내려서 다행이라는 의미로, (나)에서 은정은 비가 내려서 걱정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듣는 사람도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05 승우와 '나'가 제일 친한 친구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승우는 '나'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길 바라는 의도로 발화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며 대화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단계

06 강연자가 그림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옛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목표	화자의 관점 추론하기
채점 기준	✓ 강연자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맞게 추론하고, 이를 조건에 맞게 썼을 경우 [30점] ✓ 강연자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맞게 추론하였으나, 이를 조건에 맞게 쓰지 못했을 경우 [20점] ✓ 강연자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찾았으나 이를 바탕으로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흡하게 썼을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26~29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골목길은 집과 집을 이어 주는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이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07 ③ 08 ⑤ 09 ① 10 리호는 우산을 함께 쓰자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주는 "나랑 같이 쓰자."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다. 11 ② 12 ③ 13 ⑤ 14 ⑤ 15 ⑤ 16 ⑤

01 글을 추론하며 읽기 위해서는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글에 나타난 정보(제목이나 소제목, 중요한 단어나 어구, 글쓴이 등)를 활용할 수 있다. 글을 읽은 후 글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은 추론하며 읽기와 관련이 없다.

02 글쓴이는 방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실은 텔레비전과 휴대 전화를 치우고 소통 공간으로 바꾸자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③은 이와 반대되는 대답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이 글을 바탕으로 추론하였을 때, 거실에서도 휴대 전화를 하던 사람이 텔레비전을 치우고 휴대 전화를 내려놓는다면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04 차량이 늘어나면서 골목길이 불편한 공간이 되자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으므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05 글쓴이는 동네에 옛날 골목길처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②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공간에 해당하므로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공간이 아니다.

06 서술형 (다)에 따르면 골목길은 집과 집을 이어 주는 공간이다. 옛날에는 골목길이 소통의 공간이자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었다고 하였다.

07 글쓴이는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통이 부족한 원인이 시간 때문이라는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상황 맥락이며 사회 · 문화적 배경은 담화의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09 옷 가게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한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점원은 손님에게 입어 본 옷이 어떤지 물어보는 말을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0 서술형 리호는 우산이 없고, 우산이 있는 예주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으므로 우산을 함께 쓰자는 의도로 말했을 것이다. 따라서 예주는 함께 우산을 쓰자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나)의 "잘 봐라."는 엄마가 시험을 보러 나가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라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잘 봐라."는 엄마가 외출을 하는 상황에서 동생을 잘 돌보고 있으라는 의미이다.
③ (가)와 (나)의 화자는 엄마, 청자는 아들로 동일하다.
④ (가)는 동생을 잘봐 달라는 당부의 의도가, (나)는 시험을 잘 치라는 격려의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담화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
⑤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으므로 상황 맥락은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가)는 엄마가 아들에게 동생을 잘 돌봐 달라는 당부의 의도가, (나)는 엄마가 아들에게 시험을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격려의 의도가 담겨 있다.

13 '회사원 1'은 동료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고 있으므로 '회사원 2'도 이에 답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창문을 닫아 달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므로, '학생 2'는 문을 닫아 주겠다는 대답을 해야 한다.
② '친구 1'은 약속에 늦은 친구에게 왜 늦었냐는 의도로 말한 것이므로, '친구 2'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대답을 해야 한다.
③ '딸'은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것이므로, '엄마'는 머리가 아프냐는 대답을 해야 한다.
④ '승객 1'은 버스 문 앞에서 비켜 달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므로, '승객 2'는 비켜 주겠다는 대답을 해야 한다.

14 〈보기〉에서는 강연자에 대한 소개와, 강연에서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감상하며 옛 그림을 감상하는 자세를 배워 볼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강연자와 희망 중학교 학생의 친밀도는 추론할 수 없다.

15 이 강연을 통해 「포도」 그림이 오만 원권 지폐에 실려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포도」 그림이 지폐에 실린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6 강연자는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청중들도 옛 그림을 감상할 때 자세히 관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연자의 말에 사람들이 옛 그림을 어려워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3 다채로운 우리말 어휘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간단 + 복습 문제 31쪽

쪽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치-(접사), 밀다(어근) **06** 부채(어근), -질(접사) **07** 높-(어근), 푸르다(어근) **08** ○ **09** ○ **10** × **11** 의미 **12** 우리말

어휘 시험 **01** ○ **02** × **03** × **04** 결합하면 **05** 무분별한 **06** 다듬고 **07** 실질 **08** 의존 **09** 형식 **10** 자립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2~33쪽

01 ④ **02** ④ **03** ㉠ 항아리, ㉡ 항아리, 덮-, 크-, 무겁-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② **09** ⑤ **10** ② **11** ④

01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 즉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접사는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므로, 단일어가 하나의 접사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02 '찧다'는 단어로, 이를 형태소로 나누면 '찧-'과 '-다'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달나라 / 에서 / 토끼 / 가 / 방아 / 를 / 찧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은 총 일곱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② '토끼'와 '방아'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로, 각각 한 개의 단어이다.

③ '달나라'를 형태소로 나누면 '달'과 '나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⑤ '에서', '가', '를'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므로 각각 단어로 인정하나, '-다'는 단어가 아니고 형태소이다.

03 서술형 〈보기〉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항아리'이고, 나머지는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또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는 '항아리', '덮-', '크-', '무겁-'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04 '햇곡식'은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 '햇-'과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곡식'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멋쟁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멋'과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 '-쟁이'가 결합한 단어로, 파생어이다.

③ '날고기'는 접사 '날-'과 어근 '고기'가 결합한 단어로, 파생어이다.

⑤ '햇곡식'은 '당해에 새로 난 곡식'이라는 의미로, '햇-'은 '그 해에 난'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접사이고, '곡식'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다.

05 '개떡'은 '노깨, 나깨, 보릿겨 따위를 반죽하여 아무렇게나 반대기를 지어 찐 떡'이라는 의미로, 이때의 '개-'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따라서 '개떡'은 접사 '개-'와 어근 '떡'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06 '겨울밤'은 어근 '겨울'과 어근 '밤'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뛰노는'의 기본형 '뛰놀다'는 어근 '뛰(다)'와 어근 '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뒷모습'은 어근 '뒤'와 어근 '모습'이 결합한 합성어로,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ㅅ'이 첨가되었다. '별빛'은 어근 '별'과 어근 '빛'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맨발'은 접사 '맨-'과 어근 '발'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과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네티즌', '이북'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도 새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새말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므로, 사회가 변화하면 새말도 계속 생겨날 수 있다.

②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방법,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방법, 합성법이나 파생법을 활용하는 방법, 줄임말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③ 새말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말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새말도 존재할 수 있다.

⑤ 최근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줄임말로 새말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08 '안전문'은 이미 있던 단어인 '안전'과 '문'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엄지족'은 이미 있던 단어인 '엄지'에 접사 '-족'이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오답 풀이 ① '강추'는 '강력 추천'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방법, '슬세권'은 '슬리퍼'와 '역세권'이라는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③ '혼밥'은 '혼자 밥을 먹음.'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방법, '질문쟁이'는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④ '키오스크'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떡케이크'는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⑤ '스마트폰'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대추토마토'는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09 '편세권'은 '편의점'과 '역세권'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로, 편의점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는 줄임말로 만들어진 단어로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말로, 오늘 해야 할 운동을 완료했음을 뜻하는 새말이다. 또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③, ④ '숲캉스'는 '숲'과 '바캉스'의 일부를, '편세권'은 '편의점'과 '역세권'의 일부를 결합한 말로서 줄임말로 만들어져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다.

10 무분별하게 단어를 줄여서 새말을 만들 경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줄임말로 단어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게 새말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11 '내시피'는 '내가 만든 요리법'이라는 의미로, 우리말인 '내'와 외국어인 '레시피'를 섞어서 만든 것이다. 이런 말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34~35쪽

1단계 **01** • 단어: 나무꾼, 이, 밤나무, 를, 찾았다 • 형태소: 나무, -꾼, 이, 밤, 나무, 를, 찾-, -았-, -다 **02** • 실질 형태소: 경찰, 범인, 잡- • 형식 형태소: 이, 을, -다 **03** • 어근: 꽃, 밭, 아들, 오-, 가다, 파랗다 • 접사: -님, 새- **04** • 단일어: 노래 • 합성어: 국물, 여닫다 • 파생어: 풋사과, 치뜨다 **05** • ㉠ 혼밥, 맛점, 오운완 • ㉡ 편세권, 숲캉스 **06**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2단계 **07** '햇빛'은 어근 '해'와 어근 '빛'이, '햇볕'은 어근 '해'와 어근 '볕'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햇빛'과 '햇볕'은 모두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ㅅ'이 첨가되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08**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3단계 **09** 〈보기〉를 형태소로 나누면 '연탄 / 을 / 나르- / -는 / 그 / 의 / 손 / 이 / 새- / 까맣- / -다'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나누면 자립 형태소는 '연탄', '그', '손'이고, 의존 형태소는 '을', '나르-', '-는', '의', '이', '새-', '까맣-', '-다'이다. 또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나누면 실질 형태소는 '연탄', '나르-', '그', '손,' '까맣-'이고, 형식 형태소는 '을', '-는', '의', '이', '새-', '-다'이다. **10** ㉠은 어근 '새'와 어근 '활용'을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이고, ㉡은 어근 '찍(다)'과 접사 '-개'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다. 이처럼 새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말로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듬도록 하고,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게 만드는 것이 좋다.

1단계

01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단어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한다. 〈보기〉의 문장은 복합어인 '나무꾼'과 '밤나무'를 각각 '나무', '-꾼'과 '밤', '나무'로 나눌 수 있고, 서술어인 '찾았다'를 '찾-', '-았-', '-다'로 나눌 수 있다.

02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이므로 '경찰', '범인', '잡-'이,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이므로 '이', '을', '-다'가 해당한다.

03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을 말하고, 접사는 일부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등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주변 부분을 말한다. '꽃밭'은 어근 '꽃'과 어근 '밭'으로, '아드님'은 어근 '아들'과 접사 '-님'으로, '오가다'는 어근 '오(다)'와 어근 '가다'로, '새파랗다'는 접사 '새-'와 어근 '파랗다'로 나누어진다.

04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뿐인 단어로, '노래'가 이에 해당한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국물(국+물)', '여닫다(열다+닫다)'가 이에 해당한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로 '풋사과(풋-+사과)', '치뜨다(치-+뜨다)'가 이에 해당한다.

05 〈보기〉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말은 '혼밥(혼자 밥을 먹음.)', '맛점(맛있는 점심)', '오운완(오늘의 운동 완료)'이고,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말은 '편세권(편의점+역세권)', '숲캉스(숲+바캉스)'이다.

06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새말을 무분별하게 만들고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2단계

07 '햇빛'과 '햇볕'은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ㅅ'이 첨가되고 있다.

08 〈보기〉에서 세희는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단어를 굳이 외국어로 써야 하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가?'를 점검 기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민수는 고유어와 외국어를 섞어 만든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점검 기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3단계

09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평가 목표	형태소의 종류 파악하기
채점 기준	✓ 형태소를 알맞게 나누어 쓰고, 두 가지 기준을 바르게 세워 모든 형태소를 알맞게 분류한 경우 [20점] ✓ 형태소를 알맞게 나누어 쓰고, 두 가지 기준을 바르게 세웠으나 각 기준에 따른 분류를 알맞게 하지 못한 경우 [15점] ✓ 형태소를 알맞게 나누어 쓰고, 두 가지 기준을 바르게 세웠으나 형태소의 명칭을 알맞게 쓰지 못한 경우 [15점] ✓ 형태소를 알맞게 나누어 썼으나, 두 가지 기준을 잘못 세워 형태소를 분류한 경우 [10점]

10 ㉠의 '새활용'은 어근 '새'와 어근 '활용'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의 '찍개'는 어근 '찍(다)'과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이처럼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을 수 있다면 다듬어서 사용하고,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목표	새말의 적절성 평가하기
채점 기준	✓ ㉠과 ㉡의 짜임을 알맞게 분석하고 새말을 사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맞게 쓴 경우 [20점] ✓ ㉠과 ㉡의 짜임을 알맞게 분석하였으나 새말을 사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맞게 쓰지 못한 경우 [15점] ✓ ㉠과 ㉡의 짜임 중 한 가지만 알맞게 분석하고 새말을 사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맞게 쓴 경우 [15점] ✓ ㉠과 ㉡의 짜임 중 한 가지만 알맞게 분석하고 새말을 사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맞게 쓰지 못한 경우 [10점] ✓ ㉠과 ㉡의 짜임을 알맞게 분석하지 못하고, 새말을 사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맞게 쓴 경우 [10점]

2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어휘

간단 + 복습 문제

37쪽

쪽지 시험 01 생축 02 금일 03 디스펩시아 04 브이로그 05 단어 06 매체별 07 간절한 08 한자어 09 × 10 ○ 11 × 12 ○

어휘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분야 08 세대 09 매체 10 양상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8~41쪽

01 ① 02 ③ 03 ① 04 ③ 05 ② 06 장점은 같은 분야 이외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점은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07 ② 08 ③ 09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다. 10 ① 11 ② 12 ② 13 ① 14 ③ 15 ③

01 이 글은 '심심한 사과', '금일까지 제출' 등을 비롯하여 깨비와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을 통해 세대별 어휘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또한 (가)와 (나)의 첫 부분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제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이 글은 어휘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일상의 경험이나 글쓴이의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ㄹ. 사라진 어휘나 이를 바탕으로 한 언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깨비의 초대장'에는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지만,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에는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

오답 풀이 ① '생파'와 '생선'은 '생일(생신) 파티'와 '생일(생신) 선물'이라는 단어를 줄여 쓴 표현으로, 청소년어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② 연령대가 높은 어른들은 한자어 사용이 익숙하지만, 10대나 20대는 그렇지 않아서 한자어와 관련하여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④ 깨비 아버지는 높임말로 예의를 갖추어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⑤ 깨비와 깨비 아버지는 할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친척들을 집에 초대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므로 목적이 동일하다. 그러나 깨비는 청소년어를, 깨비 아버지는 기성세대 언어를 주로 사용하여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

03 업체는 ㉠을 한자어의 의미대로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로 오해하고 비판하였다.

04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려고 쓰는 말이므로, 유행에 민감해서 금방 사라지는 어휘라고 할 수 없다.

05 제시된 상황에서 의사는 '디스펩시아'라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의료 분야에 속한 간호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고, 같은 분야에 속하지 않은 환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6 서술형 ㉠은 음악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은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전문어를 쉽게 풀어 쓰면 같은 분야 이외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설명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07 시대의 변화로 전문 분야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이에 따른 전문어도 새로 생긴다. 즉 새로운 전문어는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것이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08 이 글에는 인터넷 언어의 개념과 특징,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이 나타나지만,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서술형 '알려 줘서 고마워.'를 'ㄱㅅ'이라고 초성만 표현하거나, '비밀번호는 뭐였지?'를 '비번?'이라고 줄여서 쓰면 빠르고 쉽게, 또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 'ㅏㅏ'는 '아'라는 감탄사를 영문자와 섞어서 쓴 것으로, 재미있게 소통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러나 깜짝 놀란 표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 문자는 아니다.

11 빈칸의 앞부분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인터넷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빈칸과는 '~지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비교적 여러 세대와 분야에서 인터넷 언어를 보편적으로 쓴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12 세대별, 분야별, 매체별 어휘를 비롯한 우리말 어휘는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13 (가)는 '고대하던', '각고', '전심전력', '선의' 등의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보기〉는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

14 (나)의 학생들은 '캐리', '브이로그', '구독자 수'와 같은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윈드 스프린트'라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교장 선생님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15 (가)의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나)의 학생들이 하는 말은 교장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한 말을 당부할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42~43쪽

1단계 **01**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2** 생파, 생선, 생축 **03** ⓐ 일상, ⓑ 전문 **04** ^^, ㅠㅠ

2단계 **05** 한자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06** 간호사는 의사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07**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빠르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다.

3단계 **08** '깨비의 초대장'은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이나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고,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은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 세대 간 어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9** ㉠에서는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여 교장 선생님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

01 '심심(甚深)한 사과'는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미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담은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2 청소년어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이나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다. '깨비의 초대장'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단어는 '생파(생신 파티)', '생선(생신 선물)', '생축(생신 축하)'이다.

03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로, 일상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당 전문 분야에서 많이 쓴다.

04 (다)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아빠는 그림 문자인 '^^'를 통해 시험에서 합격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또 엄마는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올까 봐 걱정되는 마음을 그림 문자인 'ㅠㅠ'로 표현하고 있다.

2단계

05 (가)에서는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금일(今日)까지 제출'과 '유선(有線)상으로 안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06 의사가 전문어를 사용하면 같은 의료 분야에 있는 간호사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전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07 (다)에서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만든 단어와 인터넷상에서 빠르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단어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08 '깨비의 초대장'에는 청소년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에는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처럼 세대별로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소통하면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평가 목표	세대별 어휘의 특징 파악하기 및 세대 간 어휘 차이를 극복하는 태도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초대장을 바탕으로 청소년어와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을 알맞게 쓰고 세대 간 어휘의 차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알맞게 쓴 경우 [25점] ✓ 초대장을 바탕으로 청소년어와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을 알맞게 썼으나, 세대 간 어휘의 차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쓰지 못한 경우 [15점] ✓ 초대장을 바탕으로 청소년어와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 중 하나만 알맞게 쓰고, 세대 간 어휘의 차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알맞게 쓴 경우 [10점]

09 ㉠의 '캐리', '브이로그', '구독자 수'는 모두 인터넷 언어로, '교장 선생님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언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목표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태도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에서 사용한 어휘가 인터넷 언어라는 사실을 알맞게 쓰고, ㉡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5점] ✓ ㉠에서 사용한 어휘가 인터넷 언어라는 사실을 알맞게 쓰고, ㉡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썼으나 조건에 맞추어 쓰지 못한 경우 [15점] ✓ ㉠에서 사용한 어휘가 인터넷 언어라는 사실을 쓰지 못하고, ㉡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썼으나 조건에 맞추어 쓰지 못한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44~47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① **05** ⑤ **06** ④
07 ⑤ **08** ③ **09**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미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합성법을 활용하였다. **10** ④
11 ② **12** ① **13** ② **14** ④ **15** ② **16** ④
17 ④ **18** ⑤

01 〈보기〉를 형태소로 나누면 '동생 / 이 / 지우- / -개 / 를 / 찾- / -았- / -다'이므로, 형태소는 총 8개이다.

오답 풀이 ① 단어는 '동생 / 이 / 지우개 / 를 / 찾았다'로 총 5개이다.
③ '이'와 '를'은 조사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므로 단어에 해당한다.

④ '찾았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찾-', '-았-', '-다'이다.
⑤ '동생'은 하나의 단어이면서, 이를 더 나누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없게 되므로 하나의 형태소이다.

02 ㉣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가 들어가야 한다. '-다'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가야 한다.

03 '감나무'의 '감'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다.

오답 풀이 ① '빗질'은 어근 '빗'과 접사 '-질'이 결합한 것이다.
③ 단일어는 어근, 즉 실질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④ '높푸르다'는 어근 '높(다)'와 어근 '푸르다'가 결합한 단어이고, '오가다'는 어근 '오(다)'와 어근 '가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⑤ '헛수고'는 접사 '헛-'과 어근 '수고'가 결합한 단어이고, '멋쟁이'는 어근 '멋'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04 '길이'는 어근 '길(다)'의 뒤에 접사 '-이'가 결합했고, '웃음'은 어근 '웃(다)'의 뒤에 접사 '-음'이 결합하였으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가리개'는 어근 '가리-' 뒤에 접사 '-개'가, '맨몸'은 어근 '몸' 앞에 접사 '맨-'이 결합하였다.
③ '한여름'은 어근 '여름' 앞에 접사 '한-'이, '베개'는 어근 '베-' 뒤에 접사 '-개'가 결합하였다.
④ '개살구'는 어근 '살구' 앞에 접사 '개-'가, '치받다'는 어근 '받다' 앞에 접사 '치-'가 결합하였다.
⑤ '햇곡식'은 어근 '곡식' 앞에 접사 '햇-'이, '날고기'는 어근 '고기' 앞에 접사 '날-'이 결합하였다.

05 '바느질'은 어근 '바늘'과 접사 '-질'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불'과 '삽'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여 '부삽'이 된다.
② '초'와 '불'은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되어 '촛불'이 된다.
③ '딸'과 '-님'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여 '따님'이 된다.
④ '나무'와 '잎'은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되어 '나뭇잎'이 된다.

06 '덧버선'은 '양말 위에 덧신거나 맨발에 신는, 목 없는 버선'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때의 접사 '덧-'은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의 뜻을 더한다.

07 이 글에 따르면 '많관부(많은 관심을 부탁하다)'와 같이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줄임말도 새말로 쓰일 수 있다.

08 〈보기〉의 '매요집'은 '매운 요리 집'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그러나 '먹부심'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하고 있으므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 아니다.

09 서술형 '스크린 도어'를 '안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은 것이다. 또한 '안전문'은 어근 '안전'과 어근 '문'이 결합한 것으로, 합성법을 활용하여 만든 단어이다.

10 줄임말로 만들어진 새말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글자 수를 줄여서 간편하게 만들었는지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11 '기러기 아빠'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말로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한때 유행하는 말도 새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기러기 아빠'는 교육열이 강한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③, ④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언어 사용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는 새말로 인정받는다고 하였다.
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12 이 글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어가 새로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 어휘는 계속 생겨나고 변화할 수 있다.

13 '깨비의 초대장'에서는 청소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에서는 전문어가 아니라 기성세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깨비의 초대장'에서는 '생선', '생파', '생축'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하며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초대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표현하고 있다.
④ '깨비의 초대장'은 사촌 동생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은 형님, 누이께 보내는 초대장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깨비의 초대장'은 '생파'와 같이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을 사용하였다.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은 '평안', '칠순'과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14 한 업체에서 한자어를 사용하여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말을 썼다가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라고 오해하자, 이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로 바꾸었다. 즉 ㉠을 ㉡으로 바꾼 이유는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 것이다.

15 (가)에서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 사이에서 전문어를 쓰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ㄴ은 인터넷 언어, ㄹ은 세대별 어휘에 대한 설명이다.

16 '1도 모르겠다'는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는 표현이 아니다.

17 '인플루언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모으며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매체 환경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생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말이다.

18 같은 집단 안에서는 전문어를, 인터넷상에서는 인터넷 언어를 적절히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해당 환경에서 이와 관련한 어휘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나를 돌아보는 내 마음의 거울

문학으로 성장하는 우리

간단 복습 문제

49쪽

쪽지 시험 01 ○ 02 ○ 03 × 04 청각 05 따뜻한
06 가족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으레 02 안달 03 푸념 04 회심
05 노쇠하여 06 간악하여 07 자초지종 08 전술
09 노점 10 수어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0~53쪽

01 ⑤ 02 ③ 03 소외감 04 ⑤ 05 ③
06 ④ 07 ③ 08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09 ①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⑤

01 (가)에서 엄마, 아빠, 정우는 수어로 불꽃놀이와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 보리가 가족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리를 빼고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02 'S#'은 장면을 표시하는 요소로, S# 뒤에 장면 번호를 적어 표기한다. 따라서 ㉠을 통해 장면 순서와 장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는 부분은 '지시문'이다.

03 서술형 보리는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이 수어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때 보리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자신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04 튀르키예의 부적인 '나자르 본주'는 악마의 눈이라고도 불리며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하여 보리가 구입한 물건이다. 푸른색 안에 있는 악마의 눈이 다른 악마를 막아 준다고 하였으나, 다른 악마를 몰아내는 악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제시되지는 않았다.

05 이 글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희곡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하며 현재형 문장으로 서술된다. 또한 인물의 심리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06 (가)에서 보리는 수어로 대화하는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이에 보리는 다른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사고 후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7 (라)에서 정우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보리는 정우가 겪는 청각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정우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② 고모는 보리와 정우의 수술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고 있으며, 정우의 수술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④ 정우가 인공 와우 수술을 받으면 모든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 경적이나 경보음은 인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의사는 보리가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보리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서술형 (라)에서 소리가 듣고 싶은지 묻는 보리의 말에 정우는 "소리가 듣고 싶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싶어."라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정우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09 이 글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보리의 이야기를 담은 시나리오로, 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아닌, 주인공 보리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10 고모가 정우에게 수술하면 운동을 못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정우가 수술을 받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모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1 ㉠은 정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정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가족의 마음을 담고 있다.

12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거짓말을 하던 보리는 정우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해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한다. 보리는 이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고민을 해결하며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는 소원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13 신사가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것이므로, 신사가 도둑질을 하는 수남을 붙잡고 자전거를 빼앗은 것은 아니다.

14 이 글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는 수남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신사와 수남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다)에서는 수남이 도둑질을 한 형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만 나타날 뿐, 수남이 형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있는 수남의 얼굴빛을 나타낸다. 수남이 양심을 회복하는 선택을 하자 이 얼굴빛이 말끔히 가시게 된다. 따라서 ㉠은 부도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54~55쪽

1단계 01 가족 02 나자르 본주 03 수어 04 호기심 05 내적 갈등

2단계 06 다른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주세요. 07 정우가 수술을 받으면 좋아하는 축구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이다. 08 보리의 수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하며,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다. 정우가 들리든 안 들리든 똑같다며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

3단계 09 보리는 나자르 본주를 살 때는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자르 본주를 버릴 때는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10 있는 그대로의 가족의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

1단계

01 이 글은 보리가 청각 장애를 가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가족의 사랑을 깨달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02 나자르 본주는 악마의 눈이라고도 부르며,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다. 보리는 나자르 본주를 구입하고 불꽃에 소원을 비는데, 이는 모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다.

03 (다)에서 보리는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가족들과 수어로 대화한다.

04 블랙아웃은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용어로서, 중요한 순간에 화면을 검게 처리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05 보리는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구매했던 나자르 본주를 바다에 던진다. 이를 통해 보리에게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보리의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06 〈보기〉를 통해 보리가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보리는 자신도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원을 빌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7 〈보기〉에서 의사는 정우가 인공 와우 수술을 받으면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를 들은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좋아하는 축구를 더 이상 못 하게 될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다.

08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해 슬퍼하면서도 보리의 수어 실력을 칭찬하는 모습에서 엄마, 아빠의 긍정적인 태도와 다정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정우가 들을 수 있든, 듣지 못하든 상관이 없다는 아빠의 말에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

09 보리는 나자르 본주를 사면서 자신도 가족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부적이 필요하지 않음을 느껴 나자르 본주를 바다에 버리게 된다.

평가 목표	인물의 생각 변화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보리가 나자르 본주를 살 때와 버릴 때의 생각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20점] ✓ 보리가 나자르 본주를 살 때와 버릴 때의 생각 중에서 하나만 알맞게 쓴 경우 [10점]

10 아빠가 한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똑같아."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보여 준다.

평가 목표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아빠가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 글의 주제를 알맞게 쓴 경우 [20점] ✓ 이 글의 주제를 잘 파악했으나 2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0점]

12 진솔하게 그린 나의 마음

간단 복습 문제

57쪽

쪽지 시험 01 독자 02 개요 03 점검 04 × 05 × 06 ○ 07 할아버지 08 증조할머니 09 엄마 10 철쭉나무

어휘 시험 01 분단 02 휴전 03 위안 04 계기 05 참신한 06 빛바랜 07 선정하여 08 ㉠ 09 ㉢ 10 ㉡ 11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8~59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1 '나'는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을 듣고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02 이 글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나무를 심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낸 수필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에 공감하고 있을 뿐,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육이오 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할아버지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날 뿐,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철쭉나무를 심으며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을 뿐, 손주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볼 수는 없다.

⑤ 이 글에는 전쟁 후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에서 '나'가 슬퍼한 이유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해서가 아닌,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04 이 글에서는 할아버지의 방에 있는 낡은 사진이 증조할머니의 사진임을 '처음' 부분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사진의 정체를 숨기겠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제시된 장면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심은 철쭉나무에서 철쭉꽃이 활짝 피어나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주길 바라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나'가 철쭉나무를 심는 모습의 뒤편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이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가장 적절하다.

06 후회되는 일이나 속상했던 일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독자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글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

07 듣는 이가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즐거웠던 경험이 아니더라도 노래 가사로 활용될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60~61쪽

1단계 **01** 수필 **02** 통 속의 흙 **03** 휴전 협정 **04** 위안 **05** 개요

2단계 **06** 그 순간 마치 내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다. / 할아버지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또 슬펐다. **07**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공감)하기 때문이다. **08** 할아버지와 심은 철쭉나무에서 예쁜 꽃이 피어나서 할아버지가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란다.

3단계 **09**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는 황해도 연백에서 가져온 흙으로 심은 철쭉나무이다. 이 나무는 증조할머니가 좋아하는 철쭉꽃이 피어나서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10**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로 제목을 바꾸었을 때 글의 주제가 더 잘 드러나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1단계

01 이 글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철쭉나무를 심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쓴 수필이다.

02 '나'는 삼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가져온 '통 속의 흙(황해도 연백의 흙)'을 통해 가족에 대한 할아버지의 그리움을 알게 된다.

03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남쪽에 두고 북쪽으로 가족을 데리러 올라간 사이에 휴전 협정이 맺어져 실향민이 되었다. 이때 휴전 협정은 전투 행위를 얼마 동안 멈추기로 하는 나라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

04 (바)에서 '나'는 내년 봄에 증조할머니가 좋아하는 철쭉꽃이 피어나서 할아버지가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05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처음–가운데–끝'의 형식으로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다.

2단계

06 글쓴이는 (라)와 (마)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를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다.', '할아버지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또 슬펐다'고 하며, 자신의 감정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07 '나'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기에,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나무 이름을 '엄마'라고 짓자고 말한 것이다.

08 (바)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심은 철쭉나무에서 철쭉꽃이 피어나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주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개요의 빈칸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3단계

09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는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황해도 연백에서 온 흙으로 심은 철쭉나무이다.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에서 증조할머니가 좋아하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평가 목표	소재에 담긴 글쓴이의 정서 파악하기
채점 기준	✓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가 무엇인지 썼으며, 글쓴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무의 의미를 알맞게 파악한 경우 [20점] ✓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가 무엇인지 썼으나, 글쓴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무의 의미를 알맞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10점]

10 고쳐 쓰기 전 제목인 '할아버지와 나의 추억'은 글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다.

평가 목표	점검 기준에 맞게 글 고쳐 쓰기
채점 기준	✓ 제목을 바꾸었을 때 글의 주제가 더 잘 드러난다는 내용과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내용을 모두 썼을 때 [20점] ✓ 글의 주제가 더 잘 드러난다는 내용과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하나만 썼을 때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62~66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보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척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06 ③ 07 ③
08 ④ 09 ③ 10 ② 11 ⑤ 12 ④
13 부도덕성 14 ③ 15 ③ 16 ⑤ 17 ②
18 ③ 19 ②

01 이 글은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리오로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에 비하여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적다.

02 엄마와 아빠가 수어로 대화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보리의 모습, 사고 이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가족들과 수어로 대화하는 보리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보리는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03 (나)에서 보리는 가족을 잃어버려 서럽게 울다가도 경찰관이 짜장면 이야기를 꺼내자 울음을 조금씩 그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보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04 보리는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고민이 있다. (라)에서는 보리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며 고민을 일시적으로 해결했음을 보여 준다.

05 서술형 청각 장애인으로서 정우가 겪는 차별을 알게 된 보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척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06 정우가 수업 시간에 자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각 장애인으로서 정우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철이 없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07 이 글에서 보리의 감정과 고민은 보리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08 보리는 정우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해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때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기까지의 떨림과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미안함, 불안함 등을 느꼈을 것이다.

09 (다)에서는 정우의 발이 공에 닿는 순간을 '블랙아웃(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으로 처리하며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0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똑같아."라는 아빠의 말과, 소리를 못 듣는 척했던 보리를 나무라지 않고 감싸 주는 아빠의 행동에서, 보리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주는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다.

11 이 글은 수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독자는 수남이 성장하는 과정을 감상하며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12 ㉠은 도시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수남의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수남이 도시 사람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 서술형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수남의 얼굴에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있다. 이를 통해 '누런 똥빛'이 수남의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찬반이 나뉘는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15 이 글은 수필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은 소설의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

16 (다)에서 글쓴이는 전쟁이나 이산가족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17 이 글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철쭉나무를 심은 경험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정서를 표현한 글로서, 글쓴이와 할아버지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18 ㉠은 '나'와 할아버지가 황해도 연백에서 가져온 흙으로 심은 철쭉나무이다. '나'는 이 나무에서 증조할머니가 좋아하던 철쭉꽃이 피어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증조할머니가 ㉠을 북에서 직접 보내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9 단순히 그날이 기다려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글쓴이가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면, 글쓴이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전에 강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1회

68~74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원관념은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이고, 보조 관념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다. 07 ① 08 혜진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아. 09 ①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글쓴이는 도로를 보고 일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로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19 ⑤ 20 ⑤ 21 ④ 22 ③ 23 ④ 24 ④ 25 ⑤

01 (가)와 (나)는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 즉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에서는 '가장', '고운', '노래' 등의 단어와 '-골라 -ㅂ니다.'와 '-만 -(어/아)다닙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나)에서는 '내', '숲', '고개' 등의 단어나 '-(어)서 -(으)로'와 '-고'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가)에서 말하는 이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봄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3연은 살아 있지 않은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한 활유가 나타난다. 활유를 활용하면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② 3연의 감탄사 '아—'를 통해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③ '가장', '고운', '노래' 등의 시어나, '-골라 -ㅂ니다.'와 '-만 -(어/아)다닙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강조하고 있다.

④ '쫑쫑', '톡톡', '팔짝팔짝', '풀풀'의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봄날 아침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3 (나)에서 말하는 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로 향할 때 말하는 이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4연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② 1연을 5연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③ (나)에서 '길'은 인생, 삶을 상징하는데, 말하는 이는 길을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걸어간다.

⑤ (나)는 3연을 기준으로 1, 5연과 2, 4연이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

04 '까치'와 '바람'은 말하는 이가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존재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을 상징한다. 이는 말하는 이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05 [A]는 살아 있지 않은 '고운 노래'를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날아다닌다고 표현한 활유가 나타나며, 〈보기〉는 사람이 아닌 '고운 노래'를 사람인 것처럼 손을 흔든다고 표현한 의인이 나타난다. 따라서 [A]를 〈보기〉처럼 바꾸었을 때 달라진 점으로는 ③이 적절하다.

06 서술형 ㉠에서는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듯'으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한 직유이다.

07 학교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글과 같이 독자를 고려하여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②, ④ 학교 누리집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관점, 정서 등을 자유롭게 드러내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정보의 수용자는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글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학교 누리집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

08 서술형 〈보기〉의 혜진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높임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댓글이다.

09 (가)의 블로그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을 기록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10 (나)의 온라인 대화방은 대화방에 소속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모둠 구성원끼리 모여 논의하기에 적절하다.

11 (가)의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나)의 온라인 대화방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대화방에 속한 상대와 소통하고 있다.

12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동영상을 게시하여 일상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수용자들은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기며 정서를 표현한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글을 게시할 때는 동영상의 내용을 모두 글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기〉는 소통 목적과 소통 방식에 맞게 잘 소통하고 있다.

13 누리집 고객 게시판은 제품과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독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14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 등을 추론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꼼꼼하게,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추론하며 읽는다고 해서 다른 독자와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5 (나)에 대청마루가 소통 공간으로서 지니는 특징이 제시되어 있으나, 개념과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두 학생의 사례를 자세하게 보여 주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자.'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동네에 '옛날 골목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며 이를 바람직한 소통 공간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대청마루와 오늘날 거실 풍경을 비교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오늘날 거실의 모습을 통해 소통이 줄어든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16 글쓴이는 가족들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텔레비전과 휴대 전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을 화제 삼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글에 나온 내용이 아니며, 글쓴이의 관점과도 거리가 멀다.

17 식물은 소통의 공간으로 바뀐 거실에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한 거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식물이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학생 1'과 '학생 2'의 사례를 통해 방을 정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에서 '~ 어떤 생각이 드는가?', '~ 연상되지는 않는가?'와 같은 의문형 문장을 통해 독자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하도록 유도하여 글쓴이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만들고 있다.
④ (라)에서 옛날 골목길은 소통의 공간이지만 현재의 골목길은 불편해져 소통이 줄어든 공간이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사람은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독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서술형 (다)에서 글쓴이는 도로에 대해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도로', '일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도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이 글은 거실과 지금의 골목길을 소통의 공간으로 바꿀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20 추론하며 들을 때는 담화의 상황 맥락과 함께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21 (나)에서는 미주의 평소 성격과 시선을 바탕으로 미주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고 있으며, 화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2 선미는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보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내용을 함께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미의 발화에는 영화를 함께 보러 가면 좋겠다는 제안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3 강연을 추론하며 들을 때는 마지막 부분뿐만 아니라 화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나 강조하는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야 한다.

24 ㉣에서처럼 강연자는 신사임당의 뛰어난 관찰력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중들이 이를 본받아 옛 그림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5 강연자는 이 강연을 통해 청중들이 옛 그림을 감상할 때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본받아 자세히 관찰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옛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하려고 다짐하는 우현의 모습이 가장 가깝다.

실전에 강한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1회 75~80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① **05** ㉠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였다. ㉡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하였다. **06** ③ **07** ② **08** ① **09** 주로 사용한 어휘는 기성세대 언어이며,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 **10** ④ **11** ② **12** 다른 세대의 대화 상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3** ⑤ **14** ① **15** ⑤ **16**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17** ③ **18** ⑤ **19** ① **20** ③ **21** ④ **22** ④ **23** ④ **24** 할아버지가 무엇을 끌어안고 계셨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엄마를 끌어안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고쳐야 한다. **25** ④

01 〈보기〉를 형태소로 나누면 '우리 / 는 / 오늘 / 도 / 그리- / -ㅁ / 책 / 을 / 읽- / -는- / -다'이다. 이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우리', '오늘', '그리-', '책', '읽-'으로 5개이다.

오답 풀이 ②, ④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우리', '오늘', '책'으로 3개이고,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는 '는', '도', '그리-', '-ㅁ', '을', '읽-', '-는-', '-다'로 8개이다.
⑤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는', '도', '-ㅁ', '을', '-는-', '-다'로 6개이다.

02 ㉠은 어근 '딸'과 접사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였고, ㉡은 어근 '나루'와 어근 '배'가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어근 '바늘'과 접사 '-질'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바느질'과, 어근 '혀'와 어근 '바늘'이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된 '혓바늘'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마소'는 어근 '말'과 어근 '소'가 결합하면서, '화살'은 어근 '활'과 어근 '살'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였다. 반면 '치솟다'는 접사 '치-'와 어근 '솟다'가, '고무신'은 어근 '고무'와 어근 '신'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④ '맏아들'은 접사 '맏-'과 어근 '아들'이, '선생님'은 어근 '선생'과 접사 '-님'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장맛비'는 어근 '장마'와 어근 '비'가 결합하면서, '바닷가'는 어근 '바다'와 어근 '가'가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되었다.

03 ②~⑤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나, '짓눌렸다'의 기본형 '짓누르다'는 접사 '짓-'과 어근 '누르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② 검푸르다 → 검(다)(어근) + 푸르다(어근)
③ 오르내리다 → 오르(다)(어근) + 내리다(어근)
④ 옷소매 → 옷(어근) + 소매(어근)
⑤ 꽃밭 → 꽃(어근) + 밭(어근)

04 '이북'을 우리말로 다듬은 '전자책'은 '전자'와 '책'이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05 서술형 '혼밥'은 '혼자 밥을 먹음.'의 줄임말이고, '맛점'은 '맛있는 점심',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이므로 ㉠은 모두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것이다. 한편 '라볶이'는 '라면'과 '떡볶이', '쫄볶이'는 '쫄면'과 '떡볶이', '편세권'은 '편의점'과 '역세권'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것이다.

06 '바우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면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07 (나)에서 기성세대인 깨비의 아버지는 한자어와 예의를 갖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미 사라진 어휘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심심(甚深)한 사과'가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미라는 것을 잘 모르고 오해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다)에서 의사의 말에 간호사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환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라)에서 가족들은 인터넷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언어는 줄임말이 많아서 내용을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고, 그림 문자 등으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⑤ (마)에서 교장 선생님은 한자어 표현이 많은 기성세대 언어를 쓰고 있고, 세대가 다른 학생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소통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08 깨비는 고모에게 말하면서 '평안', '칠순', '참석'과 같은 한자어와 함께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대화 상대인 고모가 어른인 것을 고려하여 기성세대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대화 상대가 청소년인 깨비인데, '고희연', '일가', '의향'과 같은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③ 대화 상대가 어른인 누이인데, '생파', '생축'과 같은 청소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④ 대화 상대가 청소년인 사촌 동생들인데, '고희연', '심심한 사과'와 같은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⑤ 대화 상대가 어른인 할머니인데 '생선', '생축'과 같은 청소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09 서술형 (나)의 깨비 아버지와 (마)의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든 어른이 주로 사용하는 기성세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성세대 언어는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

10 '디스펩시아'는 의료 분야의 전문어로, 이와 같은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려고 쓰는 말이다. 전문어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어휘는 전문어가 아닌 인터넷 언어이다.

11 (라)의 'ㅅㅏ'는 '아'라는 감탄사를 재미있게 쓰기 위해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쓴 표현이다. 또한 '쵝오', '소오름'은 '최고', '소름'을 강조하여 쓴 표현이다.

오답 풀이 ㄴ. '인플루언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유명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새말로, 빠르게 입력하기 위한 표현은 아니다.
ㄹ. '1도 모르겠다'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의미를 재미있게 쓴 표현으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문자가 아니다.

12 서술형 (마)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자어로 표현한 말은 학생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 학생들이 의미를 이해하고 힘차게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마)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쓰면 다른 세대인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의 '고대하다'는 '몹시 기다리다.'라는 의미이므로, '몹시 기다리던'이 알맞다. '서로 마주 대하고 겨루던'은 '상대하던'의 의미에 해당한다.

14 이 글은 보리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의 시나리오이다. 보리는 정우, 은정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점차 변화시키게 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한다. 이때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자르 본주'를 구입한다. 그리고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어지자 '나자르 본주'를 바다에 던져 버린다. 따라서 '나자르 본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보리의 소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6 서술형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구입한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이를 통해 보리에게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으며, 보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 (마)에서는 은정이 보리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보며 보리와 소리 내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따라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보리의 거짓말이며 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고 이후 보리는 소리가 잘 들리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척을 한 것이다.

18 보리는 은정네 가족이 모두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진다. 보리는 가족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으므로 소통이 없는 은정네 가족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은정은 보리의 고민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고 있다.
② (가)에서 보리는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③ (다)에서 사고 이후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보리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나자르 본주를 구입하는 모습에서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19 (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보리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며, 〈보기〉에서는 '낮에 내가 한 짓'이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마)와 〈보기〉의 갈등은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20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로,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다. 따라서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 글쓴이는 내년 봄 화단에서 피어날 철쭉꽃을 보고 할아버지가 위안을 얻길 바라고 있다. 즉 아직 철쭉꽃이 피어나기 전이므로, 할아버지가 철쭉꽃을 보며 위안을 얻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2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나무에 대한 애틋한 정서보다는 가족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글쓴이가 조용히 방문을 닫는 모습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진솔한 정서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장면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③, ⑤ 독자는 이 글의 할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글에 더욱 몰입하고 정서에 공감할 수 있다.

23 할아버지는 ㉠을 만지고 냄새를 맡아 보며 증조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린다. 따라서 ㉠에 담긴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산가족이 된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24 서술형 ㉡에는 할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고쳐 써야 한다. '통 속의 흙'이 증조할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임을 고려한다면, 할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대상은 '엄마'임을 알 수 있다.

25 (라)에서 '나'가 할아버지의 방문을 닫는 것은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는 '나'의 정서를 나타내는 대목이므로 이를 긴장감 넘치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이 나타나므로 이를 내레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할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한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둘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 줄 수 있다.
③ (다)에는 '나'와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으며 나무의 이름을 '엄마'라고 짓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이를 자막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⑤ (마)에는 철쭉꽃이 피면 할아버지가 위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내용을 영상에 담을 수 있다.